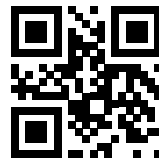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06호 2019년 10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용남 편집인: 오치주

www.snuaa.org

BRAIN NETWORK LEADERSHIP

미주동문리더들과 재학생의 만남

BRN NETWORK LEADERSHIP

Moderator  
**Kang-Won Wayne Lee, Ph.D.**  
Professor III and RITRC Director, University of Rhode Island

Speaker  
**Dr. Koo-Hyeung Lee, Ph.D.**  
NeuroWidget Inc., Co-Founder and NeuroSky Inc., Co-Founder/CTO

Speaker  
**Dr. Yun H. Choe, Ph.D., J.D.**  
Scientific Advisor/Patent Agent, LUCAS & MERCANTI, LLP

Speaker  
**Prof. Kwang Soo Kim, Ph.D.**  
Professor, Harvard Medical School

**특/강**

- 1 Silicon Valley Startup, Entrepreneurship, and Work Culture
- 2 Definition of Limitation - what we can do and what we do
- 3 Lessons and the future of personalized stem cell therapy for Parkinson's disease

**실리콘밸리 등 전문경영인 특강 및 질의·응답**

- 일 시 : 2019. 10. 14. (월) 14:00 ~ 16:00
- 장 소 :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84동 3층)

**글로벌 인턴십 MOU**

재학생 취업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

- 참여대상: 미주동창회, 학생처장, 경력개발센터장
- 협의내용: 재학생 대상 글로벌 인턴십 제공방안
- 일 시 : 2019. 10. 14. (월) 8 am - 9:30 pm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주최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관 서울대학교**

# 글로벌 리더십으로 '도약'

미 동문 각 분야 전문 리더 3인, 재학생 대상 특별 강연·만남의 시간

/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

**‘홈커밍 데이’ 행사 일환**  
**서울대미주동창회 주최**  
**이구형 박사 등 3인 강연**

미주동창회에서는 오는 14일 ‘홈커밍데이’ 행사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본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 기업 및 글로벌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 3인을 모셔 서울대학

교 캠퍼스에서 강의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강의 시간은 세션 당 30분 정도이며 총 2시간 정도로 준비될 예정이다. 이번 모교 특강행사의 사회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RITRC 디렉터이자 교수인 이강원교수가 맡았다.

특히 이번 특강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신용남 미주동창회장은 “이번 모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강의 및 인턴십 기회는 동문들이 미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으로 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문 후배들을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특강을 위해 특별히 모국을 방문해 본교에서 강의를 맡게 된 3인의 리더들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자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첫번째 세션을 맡은 강의자는 NeuroWidget Inc. 공동설립자이자 NeuroSky Inc. 의

공동 설립자 및 기술 수석을 맡고있는 이구형 박사이며 실리콘 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리콘밸리 창업 및 사업과 업무 문화”를 강의하게 된다.

두번째 세션은 Lucas Mercanti LLP의 기술 고문이자 특허관련 담당인 최연 박사로 “한계의 정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의를 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세션을 맡은 김광수 교수는 현재 하버드 의대에서 현직교수로 재직 중으로 “자가 줄기세포 치료와 파킨슨병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맡는다.

실리콘 밸리 및 전문 과학기술 업체 등에서 중책을 맡아 사업체를 시작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리더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엿보고 그 기업체에서 인턴십으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갖게 될 이번 특강에 참여나 후원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울대미주동창회 (718-463-3131)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기사 2면>

**제40차 홈커밍데이 서해 여행 - 2019년 10월16~19일**

<관련기사 2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A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강사진 /  
BRAIN NETWORK LEADERSHIP

## 이강원 교수

Professor Ill and  
RITRC Director,  
University of  
Rhode Island

이강원 교수는 1974년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1,000여명의 학사와 100명의 석박사를 배출했으며, 1992년부터는 로드아일랜드 교통 및 도로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한국계 학자들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하여 1991년에 재미 한인 교통 및 도로 학회(KDTAA)와 2012년에 재미 한인 건설 환경학회(KSCEE)를 창설하고 각각 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에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을 역임했으며, 같은 해에 대한민국 공학한림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이 교수는 뉴잉글랜드 컨소시엄, 그리고 미 연방 도로국 등을 위해 \$30M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교수는 그동안 건축토목, 포장, 교통 분야 등에서 150여 편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150여 편의 기술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2014~17년 KAUPA 총회장으로도 활동했다.



## 이규형 박사

Co-Founder/CTO  
NeuroSky Inc. and  
NeuroWidget Inc.

이규형 박사는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1971년도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91년에 인간공학 박사학위 취득. LG 전자 수석연구원, LG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설립 및 부소장, 과학기술부 G7 감성공학기술개발위원회 위원장, 고려대/KAIST/ 동국대 겸임교수 역임. 2004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뇌파 관련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뉴로스카이를 공동창업하고 최고기술임원(CTO)을 맡고 있다.

뉴로스카이는 발견된 지 10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뇌파를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창조하여 2005년과 2006년에 <포브스>와 CNN 이 "세상을 바꿀기술"로 각각 지목하였으며, 이외에 웨어러블(wearable) 심전도(ECG) 기술도 개발하여 뉴로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 산업기술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박사는 인간공학/감성공학 전문가, 기술미래학자, 교육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편의 저서와 번역서, 특허, 발표논문 등과 함께 많은 학회와 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오랜 경력의 사진 작가이기도 하다.



## 최 윤 박사

Ph.D., J.D.  
Patent Agent /  
Scientific Advisor  
Lucas & Mercanti, LLP

최윤 박사는 1985년과 1987년에 각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1993년에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15년에 Fordham Law School에서 합성 유기화학 박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변리사겸 미 특허 법인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뉴저지 주 호프만-라 로체에서 박사후 연구를 한 후, 그녀는 엔존 제약을 포함한 몇몇 회사에서 폴리머 약물과 중합체 약물 전달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약 15년 동안 일했다.

최 박사는 합성 유기화학, 뉴클레오타이드 화학, 탄수화물 화학, 중합체 화학, 약물 전달 의료기기 및 중합체 약물 접합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20여종의 미국 특허와 미결 특허 출원을 포함한 40여종의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다.

최 박사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미 지적재산권

법협회(AIPLA), 미국화학협회(ACS), 미 암 연구협회(AACR)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 박사는 KASBP의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KSEA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광수 교수

Professor, Harvard  
Medical School

김광수 교수는 세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1977년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학과 테네시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교수는 연구 초기(코넬대학 시절)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midbrain dopamine

neuron)의 발생, 발달 및 유지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중뇌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에 의해 발생하는 파킨슨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 또는 역분화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로부터 중뇌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 유도하여 세포이식함으로써, 파킨슨병 치료를 돕는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없이 단백질만으로 인간 역분화줄기세포를 구축하여 줄기세포 자가기식(autologous transplantation)의 가능성을 더욱 근접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세계 유수의 학회를 통하여 특강초청 30여회와 각종 신경생물학 또는 줄기세포 분야 학회의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85편의 논문과 9권의 저서 및 5편의 특허를 발표하였다.

## “세미나 성공을 기원하며”

신응남 회장, 이강원 교수 부부 조찬미팅



지난 9월13일 신응남(가운데 오른쪽) 회장 부부와 브레인 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이강원(가운데 왼쪽) 교수 부부가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위해 만남을 가졌다.

오는 10월 14일 서울대 개교 기념일에 개최 예정으로 준비 중인 서울 본교 재학생 대상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 준비를 위해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 부부와 뉴욕까지 방문한 현 보스턴 회장이며 브레인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인 이강원 박사 부부가 9월 13일

아침 7시에 플러스 금강산에서 조찬 미팅을 가졌다. 이번 회동으로 강사로 초청된 3분의 소개와 그 분들의 근황과 연구 업적 그리고 세미나 당일 전개해 나갈 강의 내용 등도 상의되었고, 그 외의 필요 사항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 세상읽기 /

양극화 시대,  
너무도 먼 이편에서 저편

권정희 (문리 71)

“서울대는 가난한 수재들의 학교”였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서울대 캠퍼스에서부터 나는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가난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고, 그들 가정교사와 부잣집 여고생 제자와의 사랑은 드라마의 단골소재가 되었다.

지금 서울대 캠퍼스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재학생 중 거의 4분의 3이 소득 9~10분위 고소득 가정 출신이라니 서울대는 이제 부자들의 대학이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 시험점수 잘 받으면 일류대학에 가던 시절로부터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많이 바뀌고 많이 복잡해졌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이 일류대학 진학의 필수조건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아버지의 인맥까지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고숙 압축성장 반세기, 부의 대물림은 확고한 현실이 되었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일류대학에 들어가 또 다시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되면서 자신들의 계층을 고수하는 추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이동의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다.

한국을 거대한 분열의 장으로 내몰았던 '조국 사태'는 근본적으로 진영과 계층 간 대립, '헬조선'을 외치던 흠수저 젊은 세대는 계층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이 강고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한달내내 일한 후 아파트 렌트비 내고나면 식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며 공부시키겠는가.

중상류층은 엘리베이터 타고 확실히 올라갈 때 소득 하위계층은 걸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대략 '20 대 80'으로 나뉘는 이 사회의 구도이다.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자면 우선 지쳐서 중도포기하기 쉽고, 기어이 올라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계층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부의 대물림까지 더하면 현실은 더 이상 '기술자친 운동장'이 아니다. 애초에 출발하는 층이 다르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쌓이면 폭발하는 법.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이다.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 그래서 기본소득은 인권에 해당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마티루터 킹 목사가 주장했던 '보통 소득'이다.

핀란드,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던 기본소득제가 미국 땅에도 등장했다. 북가주 스탠포드의 젊은 시장인 마이클 터브스(29)가 지난 2월부터 실험운영 중이다. 돈 많은 실리콘 밸리의 관련 단체에서 기금을 마련, 130 가정에 월 500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인구 31만의 스탠포드는 빈곤률, 실업률, 범죄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악명 높은 도시. 주민 4명 중 한명은 빈곤층이고 25세 이상 성인 중 대졸자는 17%에 불과하다. 한두시간 거리의 실리콘 밸리와 비교하면 스탠포드는 소득 양극화의 표본이 된다.

2016년 시장에 당선, 미국에서 최연소 시장이자 스탠포드 최초의 흑인시장인 터브스는 “모든 게 가난에서 비롯된 문제, 가난이 제일 큰 이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난의 해악을 몸으로 체득했다. 그가 스탠포드에서 태어나 자랄 때 엄마는 10대의 싱글맘이었고, 아버지는 강도 및 유괴로 종신형을 살고 있다. 함께 자란 사촌은 몇 년 전 할로윈 파티 중 총격 살해되었다. 다행히 엄마의 교육열 덕분에 그는 공부에만 전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스탠포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기본소득이 빈곤과 폭력이라는 암울한 늪에서 도시를 구해낼 수 있을까, 공짜 돈이니 함부로 써버리지는 않을까,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싶은 이슈는 많다. 그러나 답을 찾기에 실험 대상은 소규모이고 기간 역시 18개월로 제한되어있다.

분명한 것은 재정부담에 짓눌려 허덕허덕 살아가는 빈곤층에게 추가소득이 주는 위안은 크다는 사실이다. 주 6일 근무하던 한 가정은 500달러의 여유 덕분에 격주로 토요일을 쉬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고마워한다.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이다.

“... 그런 건가? 이렇게 살다 가라는 건가? 그런 건가? 하루하루 오늘은 괴로움의 나열인데/ 그런 건가? 띄어쓰기도 없이 범람하며 밀려오는 나날/ 그런 건가? 내일도 오늘과 같다는 건가?”

-김승희, '반투명한 불투명' 중

양극화의 한쪽 편, 못 가진 진영에서 이 사회에 던질 법한 하소연이다.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가 변형하고 행복할 수는 없다. 아담 스미스의 지적이다.

양극화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은 날로 멀어지고 있다. 최소한 이편에서 저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열려있어야 하겠다. 관심과 포용의 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가?

-이웃과 나라를 이끄는 서울대 동문들의 방향성-



최형무 (법대 69, 법률고문)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다.

이중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하며, 그러나 마음속 한 가운데에서 가정과 자녀와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실 성의껏 노력하며,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며 나라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왔거나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는 노벨상에 추천되도 좋을 만큼 아주 큰 과학적 업적을 이루고도 매우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문학과 예술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동문 중에 상당히 계심을 듣고 있다. 후세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키며 이 세상에 참으로 의미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연일 언론에 방대한 양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종의 하나로, 서울대 동문이자 전 모교 교수인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관련된 수사가 있다. 그의 가족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총 지휘하는 분도 서울대 동문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중에도 서울대 동문들이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 그를 많이 비판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중 한 분도 서울대 동문이다.

한편, 그의 가족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 수십 수백명에 달하는 수사인력에 의해 이 잡듯 뒤지는 조사를 받는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믿거나, 또는

검찰이 당면한 검찰 개혁으로 자체의 힘이 약화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서울대 동문들이 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안을 보는 입장은 달라도, 우리 동문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 동문들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박수를 치고 존경하며 자부심을 갖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결국 어떤 이의 삶은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어떤 말과 글을 남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 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 나고 다들 오래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고, 비단 동문회에 대한 기여도 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와 나라와 인류에 여러 면에서 기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동문들중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고 듣고 있다) 그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후배들에 소화를 담아 소개하든 후배들이 인터뷰도 하고 해서 진리의 빛이라는 모교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동문들이 각자에게 능력과 재능과 올바른 판단력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러한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기존에 이미 나 있는 길을 다니며 특혜의 위치에서 특권을 누리기 보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기 위해,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가는 개척자의 힘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실상 수많은 동문들이 이같이 개척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와 보다 큰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동문회에서 할 일 중의 하나는 숨겨진 주옥같은 동문들을 찾아 내어 알리고 후배들이나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회보 글/기사는 미주동창회 홈페이지(snuua.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최용완 (공대 57)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오늘날 세계 정상에 오른다? 방탄소년단, 싸이 강남스타일, 한국 여자골퍼들, 모든 일류의 생활용품이 된 삼성과 엘지 전자제품들,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 협상,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중국과 미국이 만난 625 한국 전쟁, 일본의 진주만 공격, 백두산 누르하치의 청나라 제국 창건, 칭기즈칸의 세계적 몽골제국, 훈족이 세운 동로마 제국, 진시황제의 세계 첫 제국, 고창 화순 강화에서 시작된 고인돌 마을은 2천 500년 전에 영국 런던 외곽에 스톤헨지를 짓기까지 어떻게 온 세계에 8만여 고인돌유적을 남기었을까.

이들 모두 5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한민족의 일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주, 몽골, 중국의 동해안, 일본, 월남, 터키, 헝가리, 미대륙 원주민으로 분산되며 흘러온 한반도의 문화와 문명은 온 세계역사의 동맥 안에 고동치며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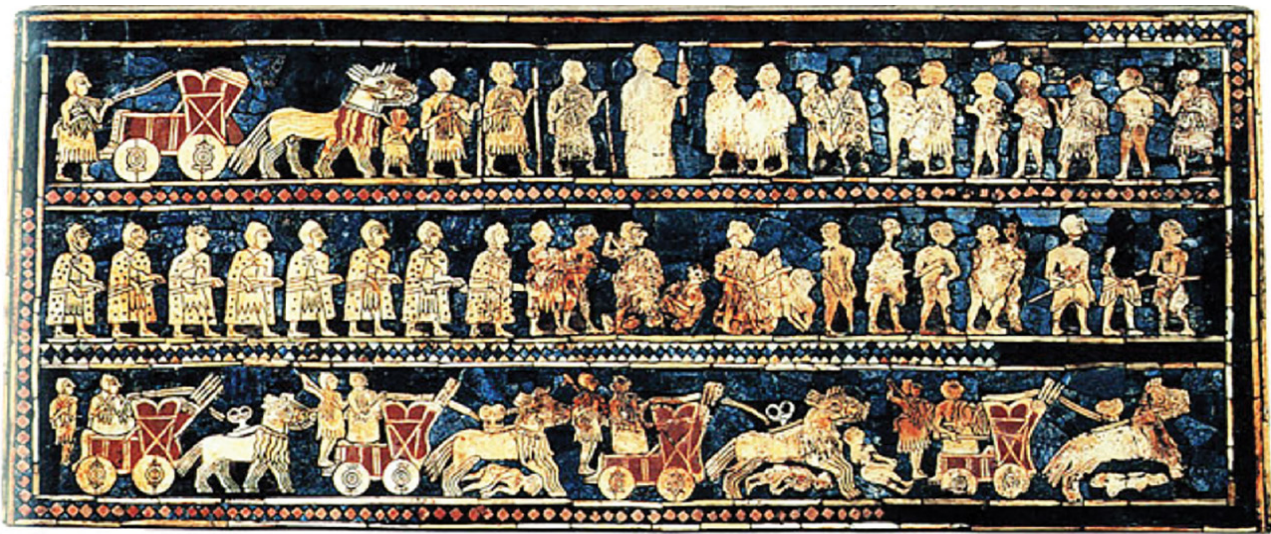
1. 유전학 학자들은 현대인류가 12만년 전 쯤에 해드는 동쪽으로 아프리카를 떠났다고 1980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보도하였다. 음식이 풍부한 소금물과 민물의 물길을 따라 6만년 전 쯤에 동남아세아에 이르러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가 5만년 전 쯤에 한반도에 이르렀다. 사계절을 맞아 농사 짓기 시작한 한민족의 문화와 문명은 동아세아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미 대륙으로 분산하여 12세기까지 인류문화와 세계 역사의 바탕이었다. 한반도의 고인돌문화는 지난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한반도에서 사계절을 맞아 시작한 농사짓는 마을은 온돌방 짓고 김치, 된장, 술을 담아 항아리에 묻고 소, 닭, 돼지를 기르며 조상의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커다란 바위를 끌어와서 고인돌을 세웠다. 솥불을 피워 그릇을 만들고 처음으로 죽음의 계절, 겨울을 이겨내어 암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 요하지역으로 이주해갔다. 흔하게 흩어진 석탄으로 불을 피워 금속을 녹여내었다. 손칼을 만들어 옥돌을 다듬고 금속무기와 연장은 나무와 돌을 다듬어 금속시대가 고인돌 마을에서 시작하였다. (사진2. 고인돌)

3. 신석기시대에 7천 년 전 요하지역에서 적석총을 짓고 금속도구를 사용한 흉신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일찍 7,000년 전 전에 나타나서 농사짓는 마을 고조선 국가체제가 세워진다. 질그릇을 만들었던 유적과 불에 탄 한 곡식유적이 한반도 주위에서 1만년 전 유물로 발굴된다. (사진 3. 빗살무늬 토기) 수염 기르며 치마입고 검은 머리를 묶어 상투 세운 사마리안(Sumer)이 거마(Chariot) 타고, 지게 치고 소에 쟁기 끌어 농사짓는 한민족 풍습의 뒤를 따라 서남아세아에 나타난다, 문화로 한반도 문화를 뒤따라 5천

## / 한민족의 얼(3) /

## 한반도에서 시작된 한민족의 얼, 한국문화를 세계정상으로 이끌다



1. 우르문화 기록 자개상자



2. 고인돌



3. 빗살무늬 토기

년 후에 나타난다. 그 생활모습이 대영제국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문화의 자개상자에 조개껍질을 새겨 그려져 있어 서남아세아의 우르문화로 알려져 있다. (사진 1. 자개상자) 아프리카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바닷길 따라 한반도 고인돌문화가 전해지듯 적석총문화(사진 4. 지린성 적석총들)는 금속도구로 바위를 다듬은 사각형 바위 피라미드가 되어 서쪽으로 전해져서 이집트 나일강에 이집트제국이 건설된다.

4. 세계 혈연지도에서 보여주듯 1만 년 전에 동아세아로 이주해온 중화민족은 양자강과 황하 지역에 정착하며 동이훈족과 융합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시작하였다. 중원을 차지하는 거마 전쟁(Chariot War)이 시작하고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중화민족의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한민족의 대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속 문화와 피라미드 문화는 세계 각 대륙



4. 지린성 적석총들



5. 병마용갱

으로 분포되었다. 동이족 진시황제 병마용갱은 세계의 첫 제국의 국력을 보여준다. (사진 5. 병마용갱)

5. 말을 타고 금속무기로 무장한 고조선의 후에 만주 훈족은 천하무적의 기마군단으로 만주지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육로를 개척하여 비단길을 열었다. 서로마를 허물고 4년 동안 다스리며 신생 로마제국을 세운다. 침략하는 지역마다 세계적 여러 민족 이동을 초래하여 오늘의 세계 민족 분포도가 우리의 선조인 훈족의 움적임에 따라 형성되었다.

6. 몽골의 칭기즈칸은 훈족이 열어놓은 비단길을 따라 유라시아 대제국을 세우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지식이 되어 중세 유럽인을 일깨웠다. 명나라 제독 정하는 미 대륙까지 항해하고 아프리카와 동아세아를 항해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유럽은 동아세아 항해지도를 따라 북남미 대륙 원주민을 점령하고 세계 각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오늘날의 세계지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7. 세계 1차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

나고 한국전쟁으로 수없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희생되어 한반도에 묻혔다, 한국군, 미군, 유엔군이 희생되는 동안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가난한 나라에서 1990년대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으로 2010년대에 10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중국의 북방민족은 한국민족의 후예들이다. 중국은 만리장성 밖의 흉산문화와 고구려문화를 흉노의 문화로 미루어오다가 최근에 만주문화를 중국문화로 변조하는 동북공정을 발표하였다.

우리 선조의 종교와 과학은 음양오행에서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 도교는 인도의 겐지스 강에 전해져서 제국불교가 나타났다. 인도의 아소카 불교제국은 인더스 강으로 옮겨졌다. 그리스 도시국가 왕들이 몰려와서 불교를 수련한 기록은 중국과 인도의 경전에 기록 되었지만 백인의 자존심에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600년 후에 서남아세아의 기독교와 회교도로 이어져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천주교, 개신교의 모습으로 다시 한국에 찾아오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대결한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력은 차츰 동아세아로 이동하고 있다. 인류역사에 새로운 사조의 시작이다.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인도, 서남아세아, 동유럽, 서유럽, 미국을 거쳐 이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다. 몽골제국 이후부터 현대 인류역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유럽, 대영제국,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다시 동아세아로 돌아오고 있다. 인류 문명과 문화는 처음부터 한반도에서 시작하였다.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 왔기에 인류의 사춘기에 접어든 현대인류의 미래도 앞으로 동아세아 한국에서 인류의 다음세대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글 내용은 한국 <자유문화>에 연재되는 ‘동아세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에서 발췌 되었다.



이 회 백 (의대 55)

## / 숨겨진 역사 이야기 /

## 남북으로 갈라진 링컨 집안

아브라함 링컨은 1842년 Kentucky 은행가이며 노예 소주자의 딸인 Mary Todd와 결혼했다. 그의 나이 33이고 Mary는 24세였다. Mary는 여섯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Robert Smith Todd)는 2년 후 재혼, 아홉 아이를 얻었다. Mary의 친어머니의 자식들은 남부군 군의관으로 일한 한명을 빼고는 전부 북부에 충성했는데 이 군의관, George Todd는 유능한 외과의사였으나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포로수용소에 근무할 때 적군(연방군) 포로를 모질게 다루었다. 특히 흑인인 경우에는 더 심했다. 반면 후처에서 난 자식은 한 명만 빼고는 전부 남부를 위해 싸우거나 그에게 충성했다.

이 중에 이복 여동생 Emilie는 Kentucky 주 지사의 아들인 Benjamin Hardin Helm 과 결혼했는데 이 두 부부와 대통령 부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1861년 시민전쟁(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은 처남격인 Benjamin Hardin Helm 에게 북부 군재정관(paymaster)직을 제의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남부군 장군으로 싸우다가 Tennessee주 Chickamauga creek 에서 벌어진 Battle of Chickamauga에서 32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Chickamauga는 체로키 인디언말로 “주검의 강”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너무 상심해서 하루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Selma, Alabama 에서 살던 Emilie 는 남편이 부상해 Atlanta 로 후송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간호하겠다고 딸과 같이 Atlanta로 달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Selma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진 Emilie 는 Kentucky 에 있는 자기 어머니집에 가기로 작정하고 전쟁지역 북부인 Kentucky 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어 달라고 남부군 장군에게 부탁했으나 북부 Grant장군에 의해 거부 되었다.

그러자 Emilie 의 시아버지(John L. Helm)는 Emilie의 친어머니이자 Mary Lincoln의 계모인 Mrs. Todd 에게 사정을 호소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종이 잡히지 않소만 당신 본인 또는 당신의 딸들 중 어느 하나가 대통령 부인에게 Emilie 의 통행증을 얻어 달라는 편지를 써 줄 수 없겠소?”하고.

이를 알게된 링컨은 사흘 후 Mrs. Todd가 남쪽으로 가서 그녀의 딸(Emilie)과 어린애가 함께 북쪽 캔터키로 넘어 올 수 있도록 하는 통행증을 자신이 직접 발급했다. 그러나 Emilie가 북방경계선 Ft. Monroe에 도착하자 경계선 책임자는 대통령이 발급한 통행증임을 확인한 후 미국정부(연방국)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해야만 통과시킨다는 규정이 있으니 선서를 하라고 요구했다. 남부를

위해 싸운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을 생각할 수 없었던 Emilie 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계선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전문을 발송했다. “그들(Emilie와 그 딸)을 내게 보내라”는대통령의 지시가 즉시 도달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이 젊은 미망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남치는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환대가 두 집안의 슬픔을 덮을 수는 없었다. 링컨 집안은 Willie(셋째아들)를 작년에 잃었고, Em-

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Tad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임을 뽐내면서 “아브라함 링컨 만세.”라고 웨치자 Katie는 “제퍼슨 데이비스 만세.”라고 응수했다.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이런 장면을 바라보던 링컨은 돌을 양 무릎에 각각 얹히고는 “태드야 네게는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네 사촌 동생에게는 삼촌 링컨일뿐이야”하는 말로 두 꼬마 병정들의 “싸움”을 끝이게 했다. Emilie 의 방문은 둘에게 다 슬픔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Mary는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않던 자기 경험은 Emilie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Willie가 죽은



링컨의 동생 Emilie Todd Helm

남부군 출신 링컨 처남 헬름, 전장서 사망

미망인 된 동생 에밀리, 대통령 관저로 초대

남쪽시민 보호는 차별대상에 난처해진 링컨

상원의원 등 반발에도 끝까지 여동생 편들어

국가이념으로 갈라진 링컨의 아픈 가족사



링컨의 부인 Mary Todd Lincoln

령관집에 이런 반역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묵과 할 수 없었다. Emilie 가 적어 놓은 일기장에 의하면 상원의원 Harris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자마자 자기를 향해 돌아서면서 아주 개선 장군이나 된 듯 의기가 양양한 어조로 “우리는 Cattanooga에서 반란군을 호되게 채찍질 했지. 그리고 부인님, 그 약당들은 마치 겁먹은 토끼모양 다 달아나버렸다는군요.”하고 빈정거렸다. Emilie 는 “Harris 상원의원 님, 그것은 첫번 Bull Run 전투때 Manassas 에서 바로 당신들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하고 비교했다. Bull Run 또는 Manassas 전투는 북부군이 처음 벌인 전투로서 북부군이 참패한 것을 빗대서 말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상원의원 Harris가 “왜 당신 아들 Robert Lincoln이 군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Mary에게 추궁하자 Mary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면서 “잘못이 있다면 내게 있소. 그가 좀 더 학교(Harvard)에 남아있으라고 한 것은 나요.”하고 기어올라가는 소리로 변명했다. 단 하나 남은 성장한 자식(어린 Tad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마저 잃을까 겁이 나서 그랬다는 진짜 속 마음은 털어놓지 않았다. “단 하나의 내 아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고 Mary를 몰아친 Harris는 다시 Emilie 를 향해 “그리고 귀부인님, 내게 만일 아들이스물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전부 반란군과 싸우고 있을 것이요.” 하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자 Emilie는 “내게 만일 아들이 스물이 있었더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다 당신을 반대해서 싸우고 있을 것이요.” 하고쌀쌀하게 쏘아부쳤다. 이것으로 이모임은 끝장이 났다.

Emilie는 황급히 방을 나갔고 Mary가 즉시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둘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성격이 급한 Sickles 장군은 오늘 일어난 일을 자기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사실을 보고 받은 링컨이 “Todd 가문의 자식들은 다 말버릇이 그럴소.”하고 담담히 Emilie를 변호하자 격분한 Sickles 장군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애당초 저런 반역자를 당신 집에 드려 놓은 게 잘못이요.”하고 링컨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아니 장군님의 말씀 좀 삼가 하시오. 내 아내와 내가 누구를 우리집에 초대하고 안하고는 우리 가정의 결정사항이요. 우리는 이런일에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않소.”라고 응수했다. 이런 불쾌한 대결을 목격한 Emilie는 링컨과 Mary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떠났다. “야 Emilie, 우리는 이런 악몽에서 언제나 헤어날 수 있던 말인가?”하는 Mary의 탄식을 들으며.

후의 슬픔이 Willie의 혼이 매일 밤 자기를 찾아오기에 가셨노라고 말했다. Mary의 적지에서 온 여동생과의 정다운 만남은 슬프게도 대통령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만들었다.

링컨은 Emilie의 방문을 어디까지나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당시엔 북쪽시민이 남쪽시민과 가까이 하는 것은 처벌사항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대통령자신도 처벌대상이 될 판이었다. 링컨은 12월 14일 이 사실을 일리노이주 주상원의원을 지낸 그의 친한 친구 Orville Browning 에게 귀뜸을 하면서 당시만 알고 있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어느날 밤 Mary의 두 친구, Daniel Sickles 장군과 뉴욕상원의원 Ira Harris가 방문했을 때 Mary가 경호원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Emilie를 자기방에 초대함으로써 이 “비밀”은 “탄로”가 나고 말았다, 이들 둘은 링컨에게 극히 충실한 친구이며 Mary를 자주 방문하는 가까운 사이였다. Sickles 장군은 Gettysburg 전투 때 포탄에 맞아서 바른쪽 다리를 잃은 장군이며 다리에 심한 통증(phantom pain)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링컨이 자주 병원에 가서 위로를 해준 인물이다. 아주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Sickles장군과 Harris 상원의원 둘 다 국가총사





거대한 바다 빙하를 만날수 있는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스 해상공원.

## 순백의 낭만과 청정자연의 신비에 ‘흠뻑’



나두섭 (의대 67)

알래스카 남쪽에 Seward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불 (에이커당 2센트) 에 구입한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다. 이 돈은 러시아가 크리미아 전쟁으로 미국에 진 빚을 상쇄하는 것으로 구입하였으므로 미국이 실제로 낸돈은 거의 없다. 러시아는 돈만 들어가는 땅을 팔았으므로 잘했다고 생각했고 미국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스위드의 냉장고라고 불렀다.

그러던 땅에서 금이 발견되어 알래스카판 골드러시가 생겨났다. 알래스카의 큰 도시들은 대부분 그때에 생겨 났다. 도시라고 해 봐야 제일 큰 앵커리지는 인구가 30만이고 두번째 큰 페어뱅크스는 주위 합쳐서 8만이다. 그리고 1-3만 짜리 도시가 몇개 있고 나머지는 인구 몇천명 되는 도시들이다.

주 전체 인구는 71만이고 면적은 텍사스의 2배이다. 여기에도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와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UCLA 와 USC처럼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이다. UOA Fairbanks 의 천문학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금만 발견된 것이 아니다. 석탄과 구리도 나오고 더 중요한 석유도 발견되어 소득세도 거의 없고 주민에게 주의 소득을 나누어 주는 유일한 주가 되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방위에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주의 별명은 The Last Frontier이고 주의

하는데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으러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다 다르며 강으로 올라올 때는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떼지어 올라온다. 연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의 흰머리 독수리, 바다의 바다사자, 땅위의 곰들도 모두 좋아한다.

알래스카 여행은 육지로 하는 여행과 크루즈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중복되는 것

하는데 1월경에는 날씨가 섭씨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것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오로라 지수가 높아야 하고 눈이 안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름만 몰려와도 볼수가 없다.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다.

크루즈 여행은 더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배부분은 시애틀이나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주의 수도인 주노를 조금 지나서 끝나고 다시 되돌아 온다.

여행이라하면 문화여행과 자연여행으로 나눌수 있겠는데 알래스카 여행은 자연여행쪽에 속한다 하겠다. 산을 좋아 한다면, 호수나 강이 좋다면, 쪽쪽 뻗은 나무들이나 fireweed 같은 야생화를 보고 싶다면, 특히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것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알래스카는 적격이다.

떠다니는 얼음덩어리로 볼 수 있고 빙하는 사방에 널려 있다. 발데즈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길의 풍경은 산의 웅장함이나 산과 들판의 아름다움에 있어 스위스의 알프스를 무색하게하고 발데즈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나가서 보는 프린스 윌리엄스 해상공원의 경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롭다.

지나간 역사가 숨쉬는 고적 유물들을 보아 왔다면 이제 자연의 조화에 도취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알래스카는 적합한 여행지가 될 것이다. 자연속에 있을때 마음의 심터를 찾은것 같은 느낌은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곰과 연어로 유명... 육지, 크루즈 여행 선택

오로라, 9~3월 사이 페어뱅크스서 관찰 가능

야생화, 빙하 등 생생한 자연의 아름다움 감탄

깃발은 짙은 푸른 바탕에 노란색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13살의 Benny Benson이 도안하여 경연대회에서 선택되어 채택되었다고 한다.

알래스카의 주 꽃은 이곳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forget-me-not 이다.

알래스카의 동물이라면 곰과 연어를 떠오르게 되는데 Black Bear, Brown Bear, 그리고 흰색의 Polar Bear가 다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살면이라고 부르는 연어의 바른 영어 발음은 새먼이고 다섯 종류가 있

/ 탐나는 여행 / 알래스카



이태상 (문리 55)

/ 삶과 예술 /

## 나비별곡: 코스미안 아리아

한편 저널리스트 로살바와 젊은 건습 뱃사공 아르카디오는 예상 못했던 사랑에 빠지고, 부부관계인 플라와 알바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미 잊어버린 망각상태이다. 그러나 정글 속 위험이 모든 인물들로 하여금 사랑에 굴복하게 만든다.

비록 이들이 삶과의 연줄을 당길수록 삶은 그 더욱 위태로워질 뿐이지만, 청중을 기절시킬 만큼 아주 멋진 마지막 장면에서 플로렌시아는 '나비잡이'의 존재를 느낀다. 오페라는 그녀가 그를 찾는지 못 찾는지, 그녀

낭만적인 사랑, 콜레라 증상이 있는 열병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한다.

이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직접 겪은 실화 둘은 필연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정말 참으로 알 수 없어라.

그 하나는 젊어서 군복무 시절 펜팔로 시작해 서울에서 잠시 사귀다 만 소녀를 25년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났다. 급기야는 기적 같



오페라 '플로렌시아 엔 엘 아마조나스(FLORENCIA EN EL AMAZONAS)'의 마지막 장면.

가 살는지 죽을는지 애매모호하게 다루지만 이런 물음은 2차적인 문제로 극 중 인물 그 누구의 추구도 무색케 하는 그 더욱 깊은 통찰력 안목을 청중에게 제시한다. 곧 삶이 그 자체와 협상하고 죽음을 극복하듯 플로렌시아가 그녀의 마지막 아리아를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로 떠오르고 그녀의 노래는 투명한 날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콜레라가 돌 때 하는 사랑 (Love in the Time of Cholera)'는 그 첫문장이 '필연이었다... '로 시작한다. 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한 나라를 무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 사람의 삶과 이들의 운명을 다룬 이야기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필연 같게 보이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짝사랑 이야기로 밖에는. 그런데 이 짝사랑은 50년 만에, 정확히 말하자면 50년 9개월 4일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다. 이것이 플로렌티노 아리자가 페르미나 다자에게 다시 한 번 그의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그가 기다린 세월이다. 그는 그의 두 번째 사랑 고백을 여자의 남편 장례식에서 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 작가는 이 작품에서 사랑에 대해, 여러 다른 모습의 사랑에 대해, 젊은 날의 첫사랑, 결혼한 부부의 사랑,

이 극적으로 두 사람은 맺어졌다. 그러나 사반세기 전 첫 번째 만남과 헤어짐이 다시 반복되는 그 옛날의 재판(再版)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처럼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

특히 두 자매는 소설 '날개'를 쓴 유명 작가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옛날 우리 펜팔시대 이 여인의 데뷔작 단편 소설 '푸른 제복의 사나이'로 등장했던 나는 다시 이 여인의 장편소설 '꽃을 든 남자'로 재등장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허허! 기뻐서 웃어야 할지, 슬퍼서 울어야 할지, 허허탄식해야 할지, 아니면 허허실실 만족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삶의 등지를 떠나 예술의 하늘로 날아가버린 파랑새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러면서 청마 유치환의 고백처럼 율조될 수밖에 없었다. '사랑했으므로 행복 하였네라! 삼가 6년 전 타계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 하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1959년에 만나 사귀다 4.19 와 5.16을 겪은 후1961년 2월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진 내 첫사랑 이야기다. 첫인상이 코스모스 같았던 이 소녀를 잊을 수 없어 날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쓰게 된 '코스모스 시리즈' 열 권의 완결본 '생

의 찬가'까지 전말할수 있는 나의 구원의 여인상 소재를 백방으로 찾아보던 중, 천우신 조하셨는지 뜻밖에 나타난 귀인의 도움으로 그녀의 거주지 주소를 입수해 2016년 12월 편지와 함께 우송했으나 편지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반송되고 말았다.

침침한 내 눈 앞에 오세영 시인의 시 '우화(羽化)'가 선명히 떠오른다.

서가(書架)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빗바랜 시집 한 권  
먼지를 털고 지면을 열자  
팔랑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작년 늦가을  
책갈피에 꽃아 끼워둔  
코스모스 꽃잎

인디고 블루  
그 적막한 하늘

우화(羽化),

아, 코스모스 꽃잎 하나가 팔랑  
한 마리 나비로 날아오르듯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한숨 한숨이 아지랑이처럼  
아롱 아롱 숨차게 피어올라  
코스모스 하늘 무지개 되리.

아니 아리 아리 코스모스 무지개 되리!  
이것이 바로 나비별곡 코스미안의 노래,  
우리 다 함께 부를 코스미언 아리아이리!

(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지만 혹시라도 내 묘비명이 하나 세워진다면 이런 말이 새겨지길 희망한다.)

코스모스를 사랑했다.  
잃어버리고 평생토록  
세상전지를 해매이다  
어디에서나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발견하고  
미소지으며 잠드노라  
영원무궁한 코스모스  
하늘엄마의 품속으로



## “동창회장 경험, 회사 성공의 밑거름”

/ 인물동정 / 손재욱 13대 미주동창회장, IPMI 참석



손재욱 전 미13대 미주 동창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하형록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서울대 미주동창회 13대 손재욱 회장 부부께서 International Parking & Mobility Institute(IPMI)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Anaheim, CA에 들렀다. 이 컨벤션은 전 세계에서 주차에 관련 된 사

업을 하거나 주차시설, 차고빌딩이 필요한 도시, 병원, 대학, 회사 등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신의 기술과 설비 등을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곳이다. 이번에도 30여 개 국가에서 3,500 가량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차관련 도시계획 프로그램과 미래의 도시를 구상하는 세미나들이 열렸었다. Tim Haahs는 서울대 동창회의 법인이화되었던 같은 해 1994년에 손재욱 회장과 하형록(Timothy Haahs)이 차고에서 시작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회사의 미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우리”라는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기독교 인으로서의 미션을 가지고 올 해까지 25년간의 축복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5년이 지난 오늘 50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장개척 그리고 창조적인 설계, 구조엔지니어링들을 하고 있다. 일년에 한 번씩 100여명의 고객들과 함께 저녁식사와 한 해를 같이 한 감사로 전하는 행사는 The Colony House에서 열렸으며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백옥자국장 이 참석하여 25주년 기념행사를 체험했다. 회사의 운영은 직원 및 고객들의 회사와 맺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며, 단순한 사업관계를 넘어선 가족의 관계를 그리는 듯이 보였다. 13대 미주총동창회장을 지낸 손재욱 회장은 자신의 동창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개선하는 실천을 하게 되었다면서 미주동창회를 섬기는 보람을 전했다.

<기사제공: 백옥자 조직국장>



지난 9월14일 서울대 간호대 학장단과 뉴욕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간호대 학장단 뉴욕동문회 방문

방경숙 학장 등 4명, 동문 50여명 만나 격려와 응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단은 9월14일 토요일, Flushing에 있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간호대학 뉴욕 동문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위해 저녁 만찬을 개최하였다. 방경숙 학장(81학번), 서은영 부학장(91학번), 김정은 연구소장(73학번), 김혜원 기획위원장(81학번) 이렇게 4명의 학장단은 Pennsylvania 대학, Johns Hopkins대학 간호대학과의 MOU를 맺기위한 방문 길에 뉴욕에서 동문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의 동문들과 로드 아일랜드, 멀리선 캘리포니아에서 여행 왔던 동문들 50여명(부부 동반 포함)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최근 서울대학 간호대학이 세계 대학 평가(영국 QS 기관)에서 간호학 분야 ranking 34위에 오르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

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동문들은 그간의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간호대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관악 캠퍼스에 다양한 학문과의 협력과 교류 및 학생들의 복수/연계 전공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악 캠퍼스에 간호대 이전을 계획하며 관악 캠퍼스 간호대학 건축 기금 모금을 추진 중이라 한다. 모처럼 교교의 소식을 접하고 동문들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 보며 대학에서 공부했던 간호학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생활의 터전을 닦고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몇분의 동문들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기부금으로 체크를 써 주시고 동창회로부터 또 개인적인 기부금 약정도 이어지고 있다.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젊은 현역의 간호대 학장단과 대부분 은퇴한 나이 든 동문들과의 만남은 세월을 넘어 선/후배간의 동지애를 느끼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해 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 강호석 신입감사 취임



대학교 남가주 동창회 감사와 US Metro Bank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제11대 미주동창회 재무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1학번이다.

### 종신이사 추대



김경숙  
(간호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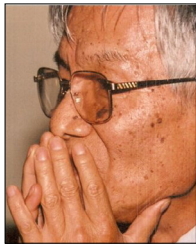
김경숙 이사는 68년, 서울대대부를 졸업한 후 72년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미국 동국대 한의대에서 수혈 후 한의사로 의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지복  
(간호 70)

홍지복 이사는 70년 서울대 간호대학에 입학, 보건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부산 예수간호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도미, 텍사스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대학교 대학병원, 로드아일랜드의 사우스카운티 병원에서 옮겨 현재까지 의료인으로 활동중이다. R한인회 총무,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KORUS FTA등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 장동만의 세상살이



장동만  
(문리 55)

#### FACT

“이탈리아 및 중국 의사 두명은 개와 원숭이의 끊어진 척수(脊髓)를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사람을 상대로 한, 머리 이식수술도 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 MY 2 C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창조주의 영역인 신비한 생명을 인간이 마구 뺏아 붙였다 하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머리통과 몸통을 바꿔 달면 그 정체성은 머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몸통이 될 것인가? 또 영혼이 있다면 그 문제는? <03/07/19>

시사 정치 등 다양한 이슈와 소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짧게 올린 글들을 소개하는 코너.

## 동문의 정 나눈 ‘화합의 라운딩’

미네소타 동문회 SKY 3개교 동문골프대회 40여명 참석 성황



SKY 3개 학교가 함께모인 동문 골프대회 단체사진.

미네소타의 무더운 여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즈음에, 지난 8월24일(토)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 2019년도 3개교 동문골프대회가 위스콘신 허드슨에 위치한 White Eagle Golf Course에서 있었다.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40여명의 동문과 친지 등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송창원(문리 53) 동문과 김기용(치대 57)/문일

지(공대 61) 동문의 찬조금에 힘입어 점심식사, 스낵, 음료수, 골프공을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즐거운 라운딩을 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위치한 Ho Ho Gourmet에서 송세진 회장 인사말에 이어 시상식과 저녁식사를 하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문의 정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 부문 Gross 1위는 최남기(연세대 동문가족), Net 1위는 정철(서울대 동문가족), 일반부 Gross 1위는 양태중(종교) 동문, Net 1위는 손휘린(게스트), Longest Drive는 안영희(연세), Closest to the Pin은 박상기(기계항공) 동문이 차지하였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교 동문골프대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의 행사



골프대회를 즐기고 있는 뉴욕동창회 골든클럽 회원들.

## 가을하늘 만끽하며 친목도모

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 골프대회

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이 지난 9월5일 High Bridge Hills Golf Club에서 골프대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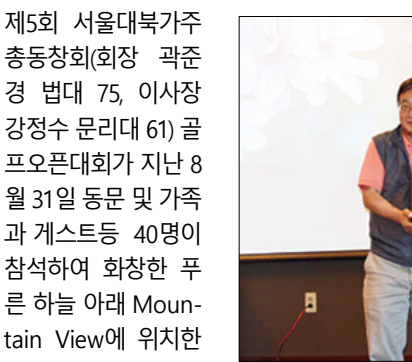
한여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 초엽에 Charter Bus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전 부담없이 골든클럽 분위기에 어울리는 즐거운 하루였다.



다소 어려운 Link style 골프장이었지만 Par 3 hole 5개 모두를 Close pin contest 하여 실력에 관계없이 참가자 전원이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분위기로 경기를 마쳤다.

## 시니어 선배 적극 참여로 활기 넘쳐

북가주 총동창회 골프대회



제5회 서울대북가주 총동창회(회장 객준경 법대 75, 이사장 강정수 문리대 61) 골프프로대회가 지난 8월 31일 동문 및 가족과 게스트들 40명이 참석하여 화창한 푸른 하늘 아래 Mountain View에 위치한 Shoreline Golf Links에서 개최되었다. (왼쪽부터)트로피를 수상하는 김순삼 동문, 한만섭대 회장, 객준경 회장



시니어부 Net 1위 정철(오른쪽·서울대동문가족)



일반부 Gross 1위 양태중(오른쪽·89) 동문

중 하나로, 지역 한인사회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3개교 동문 및 가족 뿐 아니라 지인들과 한인 2세, 3세 등 모든 지역 한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창한 날씨에 골프실력에 상관없이 많은 동문과 가족, 지인들이 참석하여 만들어낸 또하나의 따뜻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기사제공: 양한승 골프간사>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밤 행사의 단체사진.

## 모교사랑 나누며 결속과 단합

###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 정기 총회 및 동문의 밤

제 22차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 정기 총회 및 동문의 밤이 지난 9월14일 (토)에 Sheraton Overland Park Hotel에서 있었다. 이번 정기 총회에는 40여분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셔서 모교를 생각하며 결속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오전에는 골프를 좋아하는 동문들이 모여 선후배간에 격차없이 함께 웃고 게임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정기 총회 및 동문의 밤에서는 동문과 가족들이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친목을 교

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응남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께서 북미주 각 지역에서 모교의 발전과 지역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라는 격려사를 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70 여명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서울대 동창회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이는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의 큰 자부심이다. 올해는 3명의 대학생(고주영, 이민주, 윤서영)이 장학금을 받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며 Igor Kukhua(바이올린)

과 Kyoshiro Hirama (피아노)의 특별 연주를 듣고 친교의 시간은 게임을 통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창회 밤 행사 중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강연은 KSU에서 가르치고 계신 권준희교수께서 "Big Data Analytics and Its Application in Research, Education and Commerce" 라는 주제로 교양과 견문을 넓혀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난 2년동안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신 오명순 동창회장님께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격려사를 전하고 있는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

#### / 행사 화보 /



하트랜드 동창회 조찬모임 및 이사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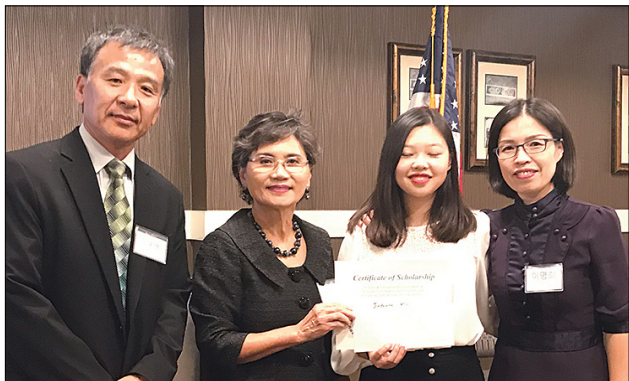
신.구회장 동창회기 인계인수.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2대 김호원 회장(가운데)과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 부부.



권준희 교수의 주제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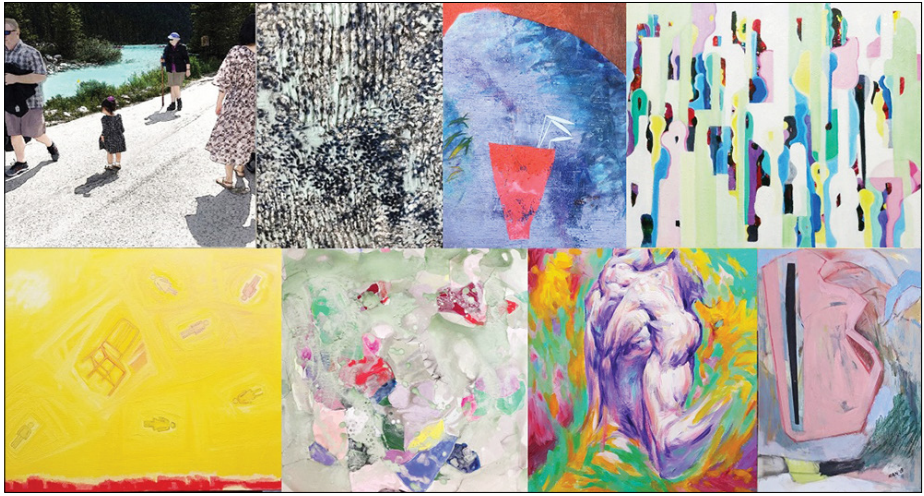
장학금 시상식.



특별 음악 연주.



골프 시상식.



## 강영일 등 동문 작가 11명 참여 남가주 한인미술가협 전시회

지난 9월 12일~20일까지 LA 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는 제51회 남가주 한인미술가협회 전시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 총 63명의 회원 작가들이 내놓은 평면화부터 3D까지 개성 있는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동문작가들 11명이 참여했다. 미셸오 미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회원작가들의 참여율이 높아서 어느 해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작가와 중견작가, 신인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부터 중견작가들의

성숙한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협회는 1964년 후 발족해 정기전과 그룹전을 통해 한인작가들의 작품활동과 전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 전시회에 강영일(미대 72), 김영애(미대 83), 박다애(미대 73), 박영국(미대 66), 박영구(미대 85), 백혜란(미대 70), 성수환(미대 59), 신정연(미대 61), 윤태자(미대 62), 주선희(문리대 66), 홍선애(미대 62) 등의 동문들이 참여하였다. 해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이 미협전에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뉴욕지부 동문 개인전 소식 /



### 조경희 '52 Days in ...'

조경희(가정 72·사진왼쪽)동문의 아프리카 여행 중의 수채화를 모은 52 Days in Southern Africa 개인전이 Riverside Gallery 에서 9월 21일 열렸다. 조경희 동문은 남편 신규천 (상대 73·오른쪽) 동문과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중 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린 40 여점의 수채화를 모아서 개인전을 가졌다. 색의 자유와 붓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뒤편게 발견한 재능을 살려 시작한 수채화 작가로서, 노력과 인내로써, 열정적인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대 동문들이 함께하여서 우정과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김봉중 'Cyber-Addiction'

김봉중 (미대 84·사진) 동문의 Cyber-Addiction을 주제로 한 개인전이 9월2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전시되었다. 1990년부터 뉴욕에서 활동해온 김봉중 동문의 설치 회화 작품들은 사이버 시대의 중독에서 오는 현상을 자연의 형태인 양귀비꽃과 고장나고, 부수워진 디지털 기계를 한 캔버스에 담아 색채를 더함으로 현대인의 파괴된 인간성과 사랑의 상실감을 보완해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addition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듯한 작품을 이었다.

## 내가 내는 구독료, 돈돈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 / 오피니언 /

## 직선과 원



송윤정(인문 89)

는 듯 이시가 생각난다.

8월 15일은 인도의 광복절이기도 하다. 여러 나라에 출장을 다니며 곳곳에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보았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엔 공통점이 있다. 분열된 나라라는 것.

예를 들면, 8월15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리는 나라인 한국·남한과 북한, 콩고·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독립하며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식민통치하 모든 통치자는 식민지 백성들의 분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영국은 인도인이 단합하여 영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도를 놓을 때도 다른 언어를 쓰는 지방마다 철도 넓이를 다르게 하여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분열이라는 족쇄에 매어 길들여졌다.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성노예로 잡혀가고 소년과 청년들은 노동 노예로, 전쟁터 총반으로 불참하였다. 언어를 뺏기고 이름도 뺏긴 노예의 삶.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원전 15세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 기원전 1446년 홍해를 건너 광활한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는가? 홍해가 갈라져 물속 땅을 밟고 갈라졌던 물에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곧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오히려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거쳐 노예의 정신을 떨쳐내고 새로운 세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즈음에 서울대 재학생이 선정한 '부끄러운 동문' 리스트를 들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한국의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남편이 인터넷상에서 보고 내게 큰소리로 읽어주었다. "1위 조국, 2위 유시민..." 1위 한 조국은 두 해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북콘서트에서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른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그가 올해는 그 리스트 1위에 올랐다!

줄이 끊긴 이후에도 말뚝 주위를 맴돌며 같은 동선을 반복하는 개처럼 우리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한다. 우리는 진정 자랑스런 동문이 있는지, 공동체와 민족, 인류에 기여한 동문이 누구인가, 이 부끄러운 동문의 역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아직도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박평일 (농대 69)

## 축복의 기도

이제 또 한 사람의 여행자가

우리 곁에 왔네

그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하늘의 따뜻한 바람이

그의 길 위로 부드럽게 불기를

위대한 전령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이를 축복하기를

그의 모카신 신발이

여기저기 눈 위에

행복한 발자국을 남기기를

- 체로키 인디언들의 기도

오랫만에 오늘 오후에 가든 잔디를 깎았다. 내가 잔디를 자주 깎지 않는 이유는 결코 나의 게으른 성격 탓만은 아니다.

어느 한 후배가 우리집 잔디밭을 두고 비아냥거리며 “선배님 집에는 잔디밭이 없잖아요. 잡초밭이지” 하는 말은 맞은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집 정원은 잡초밭도 아니다. 철따라 이름모르는 작은 야생화들이 피고지는 야생화들 꽃밭이다. 나는 단정하고 깔끔한 잔디밭 보다는 무질서해 보이는 야생적인 야생화 꽃밭을 더 사랑하고 즐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작은 산골마을에서 보냈다. 그 당시만 해도 겨울철이 되면 산과 들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우리집으로 삼삼찮게 숨어들곤 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는 짐승들은 절대로 박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집에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사신들이다” 하시며 산짐승들의 먹이를 정성껏 챙겨주곤 하셨다. 어느 한 여름철에는 검은 큰 구렁이 한마리가 집 헛간으로 기어들어와 우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겁에 질린 내가 긴 막대기를 들고 구렁이를 내리쳐려 하자 어머니는 “애야, 그대로 놔두거라. 집에 들어온 하찮은 미물들도 그렇게 대정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며 조용히 나를 타

이르셨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 탓인지, 나는 20여년 전 이곳 숲속으로 이사를 온 후 정원에 동식물들에게 해로운 화학제 품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드는 산짐승들, 곤충, 미생물들, 나무, 야생화, 산새, 잡초들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쫓겨낸 적도 별로 없다. 벌에 쏘여 한두 차례 병원신세를 진 적이 있었으나 그 이유로 그들의 삶터인 벌집을 제거하지 않았었다. 한 때는 레귤들이 밤마다 우리집을 습격해서 쓰레기통들을 뒤집어 놓고, 선문 창문을 물어뜯고 침입해서 난장판을 벌여놓기도 했었다. 속무우책으로 그냥 놔두었다. 다행히 기르고 있던 충성스런 개, ‘재만’이가 하룻밤을 꼬박 레귤들과 혈투를 벌이며 승전고를 울린 후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재만에게 죽을 때까지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우리집에 ‘Non GMO’ 먹이들이 있다는 소문이 사슴들 사이에 난 탓일까. 매일처럼 사슴들은 때거리로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해서 닥치는대로 먹어치운다. 옆집에 살고 있는 모리스 말에 의하면 밤이면 우리집 드라이브웨이 밑 계곡에 사슴들이 잔을 치고 잠까지 잔다고 한다.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님)

사슴들은 유난히 꽃들을 좋아한다. 꽃이 피어나는 냄새만 나면 사슴들은 성난 폭도들처럼 우리집으로 몰려와 순식간에 먹여치우고 한다. 물론 사슴들의 접근을 막는 ‘Deer & Rabbit Repellent’ 같은 화학제품들이 있다. 또, 너서리에 가면 ‘사슴들이 먹지 않는 꽃들’을 모아놓고 팔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나기도 전에 사슴들이 먹여치워버릴 분노가 치민다. 그럴 때면 너서리를 찾아가 ‘이놈들, 내가 영원한 부처 가운데 토막 인줄 알아. 톡톡히 맛을 보여주마!’ 하고 투덜거리며 이것저것 고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까지 사슴들을 우리 집 마당에서 쫓겨낸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꽃맛을 보겠는가’ 하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빈손으로 발걸음을 되돌리곤 한다. 솔직히 그들로 숲

속 가족의 일원으로 살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지난 겨울 제설차가 정원에 남기고 간 흙터가 신기하게도 두 사람 인자를 남기고 갔다.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 봄에 노란 채송화 39여 그루를 심었두었다. 아니나다를까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슴들이 몰려와 꽃들을 뿌리까지 먹여치우고 말았다. 그래서 혼자서 고심 끝에 한두달 전에 ‘사람’ ‘인’자를 상징하는 때는 레귤들이 밤마다 우리집을 습격해서 쓰레기통들을 뒤집어 놓고, 선문 창문을 물어뜯고 침입해서 난장판을 벌여놓기도 했었다. 속무우책으로 그냥 놔두었다. 다행히 기르고 있던 충성스런 개, ‘재만’이가 하룻밤을 꼬박 레귤들과 혈투를 벌이며 승전고를 울린 후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재만에게 죽을 때까지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며칠 후(?), 붉은 Vinca 꽃들을 사슴들이 모조리 먹여치우고 하얀 Vinca 꽃들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후 또, 일주일(?)쯤이 지나고나자 중앙을 지키고 있던 해바라기꽃들마저 말라죽여버리고 말았다. 왜 사슴들이 왜 붉은 꽃들을 좋아하는지? 해바라기 꽃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그 이유들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인연이란 본래 그렇게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다만,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인연들이 가는 길 위로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한 발자국을 남겨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나는 부탁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은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 한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뉴욕 신채장애자 회관벽에 적힌 시, 작가 미상-

진리는 논리적이 아니다. 역설적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이고 ‘버어있는 것이 차 있는 것이고, 차있는 것이 버어있는 것’이 진리다. 역사는 해석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의 해석이다. 우주는 신이 창조했지만 그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삶에는 일정한 지도가 없다. 끊임없이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ING). 그 자체가 삶의 지도다. ‘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가 존재하고,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이 존재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서 삶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신비라고 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읽어나 이 글을 읽으며 별별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하느님께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로 시작되는 예수의 산상수훈 설교를 평생동안 침실 벽에 걸어두고 묵상하며 산걸로 알려진 인도의 간디는 일찌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 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 버지니아 슈속 아침메모



노영일 (의대 62)

/ 예술과 삶 /

## 선각자 ‘정월 나혜석을 생각하며...’

창밖에 비가 내린다. 모처럼 세웠던 주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TV를 들었다. 위성방송 EBS에서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의 일생에 관한 다큐멘타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몇번째 재방송인듯 한데 나는 처음 보는 것으로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였을뿐 아니라 문필가였고, 특히 여성해방과 여권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로 기피의 대상이되었다가 최근에 재 조명되는 작가이다. 나는 그녀의 예술이나 도덕적인 평가보다 그녀의 일생에 더 흥미를 느꼈다.

적인 수법으로 인물과 풍경을 그렸으나 파리 체제중 후기인상파, 야수파, 표현파의 영향을 받아 화풍이 많이 바뀌었다.

파리에 체류할 당시 천도교령 최린을 만난다. 이는 그녀의 인생을 뿌리채로 흔들어 놓았다. 그는 박식하였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최린과의 만남이 찾아지고 함께 유럽 여행까지하며 불륜의 관계로 빠져 들어갔다. 최린은 나혜석에게 김우영과 이혼하면 자기가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1920년 초의 나혜석  
▶나혜석의 자화상.

귀국후 최린과의 불륜관계를 알게된 김우영은 이혼을 강요한다. 2년간의 별거후 마음이 달라지면 재결합한다는 조건부로 합의이혼을 한다. 그러나 김우영은 곧 재혼을 한다. 나혜석은 최린을 찾아 갔으나 출세욕에 사로잡혀있던 그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그는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고 최린을 정조유린죄로 고소를 하였

다. 이것은 당시 대형 스캔дал로 신문에 보도되었다.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고 소취하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나혜석은 문란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나는 남편을 속이고 다른남자를 사랑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정이 두터워 지리라 믿었을 뿐이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할 감정이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남녀연애관의 연장이었으며 조선사회에는 절대 통용될수 없는 자유연애관이었다.

그녀의 개인전은 파리를 날리고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그녀의 그림을 샀던 사람들도 그녀의 그림을 떼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집에 불이나 소강했던 작품들이 다 불타 버렸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친구인 수덕사 일영스님을 찾아가 종이 되려 하였으나 그도 받아주지를 않았다. 이혼후 줄곧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기도 했고 큰 딸 나열을 만나러 개성까지 갔다가 허탈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우영이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절대 만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

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파킨슨병에 중풍까지 걸려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행여 병자로 쓸려져 죽었다. 그녀의 나이 53세 때였고 그녀의 유해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나혜석의 수많은 글들 속에서 그녀의 내면 세계를 엿볼수 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입센의 인형의집에서 감명을 받은듯 하다. “인형의 가(歌)”라는 시에서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노래를 놓아 주라고 하였다. 젊은날의 노라부인을

열망했던 그녀는 현실사회에서 자식을 두고 빈몸으로 쫓겨난 이혼녀에 불과했다. 자서전적 단편 “경희”에서는 “계 집이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 만”이라 하는 아버지의 말에 “그것은 옛날 말이야요.

지금에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 못할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수있고 벼슬도 할수 있어요. 사내하는 것은 무엇이던지 하는 세상이야요”라고 했다. “선달대목, 초하루날”에서 “명절은 여자들이게만 일 시키는 고통스러운 날”이라 했다. “현숙(玄淑)”에서 “우리들은 반년간 비밀관계를 가져요. 신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여성을 억압하고 움죄는 족쇄이고 이혼의 비극은 여성해방으로 예방해야 하고 시험결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우영과의 결혼조건으로 “일생을 두고 지금같이 나를 사랑해 줄것, 그림 그리는것을 방해하지 말것, 시어머니와 전실딸과는 함께 살지 않을것, 그리고 신혼여행을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로 가서 비석을 세워줄것”을 요구했고 김우영은 이를 모두 수락했다. 이로 인하여 김우영은 남자 답지 않은 출장부로 여겨졌다.

“이혼 고백서”에서는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되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적실 후실에 몇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

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흘뜨려 지기도 하고 실수수 하는 그런 사람이 외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겼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이,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요. 내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의 재가 될 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3개월 예정이던 구미 여행이 1년 9개월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식새끼들을 뺄개진 귀신들”이라 했다.

둘째아들 김진은 서울 법대 교수였다가 미국에 와서 알리노이, 캘리포니아등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다. 그는 노년에 “그뎨 그길 이 왜 그리 좁았던고”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아버지 김우영이 당한 고통과 자기 소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수치감등을 썼으나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할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조금만 절제를 하였었으면 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번은 허름한 노인인 학교에 찾아와 “내가 네 어미다하고 울면서 계속 말씀 하셨지만 저는 혼이 달아나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고 수업종이 울려서 교실로 돌아 갔다”고 했다.

한은 총재를 지낸 세째아들 김건은 고향인 수원에 나혜석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역을 맡았다. 거의 한세기 동안 도덕육에 묶여 금기처럼 묻혀있던 나혜석의 재 평가가 활발해 진것은 최근 20여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에미는 선각자였느냐라” “나혜석 전집” 등 많은 출판물들이 나왔다.

나혜석은 시대를 100년을 앞서 살았다. 그래서 모진 역풍을 맞아 쓸려졌다. 대개 혁명가, 선구자, 선각자, 위인들은 당대에서 모진 삶을 사는것이 보통이다. 여류 소설가 박경리는 운명하기 몇달전에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한 한것을... 버리고 같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 역시 여류 소설가인 박완서는 노년기에 이렇게 썼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수 있는 것처럼 나편한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것을 안 할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한걸 두걸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나혜석이 불같은 삶을 살다가 폭풍에 사라졌다면, 박경리나 박완서는 조용한 인생을 물흐르듯 (上善若水) 살다가 갔다고 할수있다. 과연 어떤 인생이 바람직 할가. 창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린다.





김영석 (음대 74)

/ 신화와 음악 /

## 뮤즈의 노래

〈MUSE〉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를 쓰고, 신에게는 노래를 바쳐라”

음악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Apollo는 Zeus의 아들로써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과 시 등 예술 전반을 관장하는 신이다. Apollo가 태어나던 날 첫 울음 소리는 음악이었고, 그의 어머니 Leto의 머릿속에는 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온전하다(Faultless)’라는 메시지였다.

Zeus는 그의 첫 번째 아들인 Apollo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였다. 그의 어머니 Leto는 정숙하고 겸손하며 고상한 품위를 가진 여신이었다. 남의 시선을 끌지 않고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즐겨 입고 다녔는데, 그런 점을 눈여겨 본 Zeus는 Leto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고귀한 품성,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이상적인 아들 Apollo를 얻게 되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하기 좋아 했던 Apollo는 Helicon 산에서 살던 Muses들과 가까이 지냈는데 이 Muse들은 Zeus와 기억의 여신 Mnemosyne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자매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전쟁에서 신들의 세계를 제패한 Zeus는 자신의 전쟁과 승리의 역사에 대해 그 정당함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일을 믿고 말길만한 적임자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기억의 여신 Mnemosyne와 아흐레 동안 동침을 해서 얻은 아홉 명의 딸들에게 이 책임을 맡기는데 그들이 Muses들이다. 문자가 없었기에 자연스레 시에 음률을 붙여 외워서 전했는데 그것이 노래가 되었다. 다윗의 시편이나 모세가 죽기 전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음율을 붙여 외워 전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말’을 ‘마지막 노래’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아홉 Muse들은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었다. 첫째 Clio는 역사적인 영웅들에 관한 서사시, 역사 그리고 Guitar를 만들었다.

둘째 Urania는 하늘에 대한 찬양과 별과 천체,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 졌고, 셋째 Melpomene는 연극에서 비극을 담당하며,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으며 넷째 Thalia는 희극을 담당하고 지리, 건축과 같은 과학과 연관된 분야를, 다섯째 Terpsichore는 무용과 함께 교육을 담당하며 Harp를 만들었고, 여섯째 Polyhymnia는 무용, 찬양 그리고 Pantomime(무연극), 문법, 지리학을 일곱번째 Erato는 서정시와 사랑의 시, 결혼을 담당했고 그의 이름 Erato는 Eros에서 왔다.

여덟째 Euterpe는 자연과 현재에 유행하는 시를, 그리고 몇 개의 악기를 만들었고, 아홉째 Caliope는 으뜸가는 Muse로 현악기와 서사시, 심판을 담당 하였는데, 전제호는 이야기에 의하면 Homer가 Iliad와 Odyssey를 쓰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The Parnassus by Raphael  
(파르나수스 산에서 만난 시인들과 뮤즈)



▲Muses를 대표하는 Calliope.

그들이 살던 Helicon 산은 Apollo가 거처하는(Delphi에 있는 Apollo 신전) Mt. Parnassus 산맥에 이어진 산으로서(필자가 본 바로는 Mt. Parnassus 산은 험한 바위산인데 비해 Apollo신전에서 조금 왼쪽으로 보이는 Helicon산은 아주 숲이 울창하고 비옥해 보이는 산이었다) 고대 여행가며 지리학자였던 Pausanias의 여행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Muses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Pausanias의 여행 기록에 의해 Delphi에 있는 Apollo 신전이 발굴되었다) 이곳에 두 개의 신성한 샘이 있다고 전해 지는데 아가니페 샘과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발굽으로 쳐서 생겨 났다는 Hippocrene 샘에서 뮤즈들이 물을 마시고 몸을 정화 시켰다고 하는데 이 샘물은 독사의 독까지도 중화를 시킬 뿐 아니라 마시면 Muses와 같이 시적, 예술적 영감이 생겨 난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시인,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았고 또한 고전 문학에도 많이 인용된 곳이다. 특히 모든 Renaissance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들이 Muses의 영감에 의해 이



‘전쟁의 신’ 제우스의 아홉 딸, ‘뮤즈’라 불려

음률로 ‘승리의 역사’ 후대에 전하는 역할

각각 영웅의 서사, 희/비극, 사랑 등 담당

현대 예술가들에 영감 불어넣는 존재로

루어 졌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것에 의해 뮤즈는 음악가, 시인, 무용가 등 예술가나 인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Museum(미술관), Music(음악)의 어원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뮤즈는 모든 예술가나 인문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바티칸 궁전 박물관에는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Raphael의 벽화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파르나수스’는 시인들과 뮤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arnassus by Raphael·사진 위>  
‘The Parnassus’는 fresco 기법을 사용한 벽화이다. Raphael 이 1509년-1511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Vatican 궁전의 Raphael을 위한 4개의 방 (Stanze di Raffaello)중에서 ‘서명의 방’ 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곳에는 인간의 네가지 인문학 - 철학, 종교, 시, 법률-에 대한 것을 각각 그려 놓았는데, The Parnassus 는 그 중 시의 분야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중앙에는 파르나수스산의 주인인 Apollo가 현악기 -르네상스시대의 악기인 Lira da Braccio-를 연주하고 있고 그 주위로 아홉 명의 뮤즈들이 둘러서 있는데 Apollo 옆

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흰 옷의 muse가 Apollo와 사랑에 빠진 Caliope이다. 그 옆으로는 고대를 대표하는 아홉 시인과 당대 가장 뛰어난 시인 아홉 명이 Apollo의 생일 파티에 초대

되어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안부를 교환하는 듯하다. Apollo 앞으로 내리는 물은 아마도 뮤즈의 영감을 얻는 Helicon의 신비한 샘물인 것이다. 원주 상단에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장님이었던 Iliad, Odyssey의 저자 Homer가 기쁜 표정으로 자기의 시를 읊고 있는 듯 하고 그 옆에는 Divine Comedy의 저자 Dante와 그의 길을 안내했던 Virgil이 천 몇백 년의 사이를 두고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래쪽에는 오른 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유일한 여성 시인 Sappho가 보이고 (다른 아홉명의 여자들은 뮤즈들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계관시인이었던 Petrarch와 Decameron의 저자 Boccaccio가 담소하고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고대 시인으로는 Homer, Alcaeus, Sappho, Anacreon, Virgil, Horace, Ovid가 있고, Raphael 동시대 시인으로는 Dante, Boccaccio, Ariost, Petrarch와 함께 아홉 명의 Muse와 Apollo 정도가 식별되고 있다. 라파엘은 이 그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뮤즈와 시인들을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아냄으로써 시의 불멸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젊은 시인들의 모임 Monpamasse가 이 그림의 영향으로 결성되지 않았을까 필자는 유추해 본다.



이내원(사대 58)

/ 이순신 이야기 /

## 명량의 거친물결

-기적의 승리, 그 비결을 해부한다-

10월 25일은 역사적인 [명량 대첩] 422 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해전을 기획 강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고 감탄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그 해답은 충무공의 마음의 창(窓)인 어록에서 찾아야 할 듯 하다. 왜냐하면 공의 어록 열 다섯 편 중 최고 수작 3편이 모두 이 해전 준비 과정에서 탄생 하였기 때문이다. 명량 해전의 뿌리는 이순신 대신 통제사가 된 원균의 1597년 7월 16일의 칠천량 패전이다. 이때 조선 삼도 수군의 판옥선 160여 척중 대부분인 150여척이 격파 당하여 사라졌다. 이순신 장군이 5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구축한 조선 수군의 심장이 멎은 것이다. 초계(합천)의 권을 도원수 수하에서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이 이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통곡 한 때는 이를 후인 18일 오전이었다. 그리고는 어찌 할줄을 몰라 안절 부절하는 도원수 권율에게 자기가 직접 패전지역을 답사하고 대책을 건의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허락을 받아 한시를 아껴 바로 그날 오후 군관 9명을 인솔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3일 뒤인 21일 패전 해역인 노랑에서 옛 부하 들로부터 ‘통제사 원균이 먼저 배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수군이 무너져 이지경이 되었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길을 되돌려 진주 정개산 손경례의 집에 머물던 이순신은 8월 3일 선전관 양호로부터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 교지를 받고 공식 소임을 시작 한다. 이후 내륙으로 하동 구례 국성을 거쳐 옥과까지 복상했다가 다시 남행을 시작 하여 승주 순천 낙안 별교를 거쳐 14일 보성에 도착 하여 3일을 머문다. 이곳은 명궁으로 이름난 장인 방진이 보성군수를 지낸 처가 마을인 연고로 주민들의 열렬한 환대와 지원으로 필요한 군수 물자의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곳의 유서 깊은 열선루(列仙樓)에서 15일 선전관 박천봉으로부터 다시 선조의 유지(有旨 - 임금의 명령)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유지의 내용은 어이 없게도 ‘조선이 전함을 모두 잃어 싸울 배가 없는 마당에 어떻게 수군을 유지 하겠는가? 차라리 수군을 폐지하고 권을 수하로 들어가 육전에 참여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제야 선조 임금이 제정신이 돌아 왔는가? 사리로 보면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임금이 미처 깨닫지 못한 국가 패망의 길인 수군 폐지를 절대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그 길은 일본에게 남해와 서해를 통한 군수품 해상 보급로를 활짝 열어 주어 망국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했다. 이때 장군께서 쓰신 반대 상소가 뒷날 바다의 간성인 해군 사관생도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바로 그 감명의 어록이다. 尙有十二 微臣不死 (상유십이 미신불사 - 우

리에게는 아직도 열두척이나 되는 판옥선 이남아 있고 이 보잘것 없는 신하 이순신이 죽지 않은 한 싸워볼만하다) 이 어록의 진수는 160척중 12척 이면 ‘겨우’라는 표현이 정상일 터인데 이를 거꾸로 ‘아직도’라는 극단의 긍정법을 쓴 점이며, 어떻게 하든지 임금의 마음을 돌리려는 장군의 충정이 측은하게 느껴지지만 이 상소는 성공하여 망국의 위기를 벗어 난다. 이후 장흥 강진을 거쳐 초계를 떠난지 꼭 한 달만인 18일 땅끝의 작은 포구 회령포에 도착하여 고달픈 육상 행군을 마감 한다. 이튿날 19일에는 칠천량 해전시 경상 우수사



로 본대를 이탈하여 직할 선단을 이끌고 도망쳐 온 배설로부터 온전하게 보전된 판옥선 12척을 인수 받음으로서 수군의 모양새를 갖추게된다. 이 12척이 명량해전 13척의 주력이 되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니 배설은 공로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제버릇은 어쩔 수가 없었던지 해전이 임박했던 9월 3일 진도 벽파진 진영으로 부터 다시 도망쳐 ‘도루왕’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고향 선산에 숨어 살았으나 이순신 전사 이듬해인 1599년 초 도원수 권율에 체포되어 참수 당했다.

그러나 이순신 보다는 오히려 서너달을 더 살아 임진왜란의 헛갈리는 ‘조카’라는 평도 듣는다. 이후 뱃길을 따라 서진 하여 이진에 도착 하였으나 장군의 속병이 도져 곱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인사 불성으로 3일을 앓아 눕는다. 23일에 이진을 떠난 후 어란 장도를 거쳐 29일 다시 명량의 입구인 벽파진으로 옮겨 명량 해전 이를 전인 9월 14일까지 약 15일을 머무른다. 어란에 적선 55척이 나타나 있다는 첩보를 받고는 다시 함대를 명량수로로 지나 우수영으로 옮긴다. 해전 하루전인 9월 15일 일본군 300척이 명량 입구에 도착 했다는 첩보를 받은 장군이 첫째로 내린 지시는 물러든 피난민들 에게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언덕에 오르게 한 안전 조치였다. 그리고는 모든 장졸을 우수영 광장에 모으고 병법을 인용 하며 이와 같이 어려운 해전

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강인한 정신적 자세를 힘주어 강조했다. 그리고 또 한 명량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들어 숙적 열세를 겁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분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였다.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라는 뜻이다.

必死則生 必生則死 (필사즉생 필생즉사 - 죽기로 싸우면 오히려 살 것이요 살고자 꾀를 부리면 오히려 죽게 된다)

一夫當運 運權千夫 (일부당경 즉구천부 - 한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을 막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원균과 이순신의 리더십 유행을 보게된다. 한 사람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부하들을 버리고 치욕스럽게도 육지로 도망치다가 적에게 참살당했고 또 한 사람은 대장을 위험에 빠뜨리며 이탈한 부하들에게 자신의 훈령 ‘필사즉생’을 스스로 실천해 보임으로써 절대 열세를 대승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그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순신 어록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필사즉생은 패전의 공포에서 벗어나 수군 전체의 강인한 정신적 자세를 촉구한 것 이었지만 개전 초기 장졸들 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 자신은 몸소 이를 실천하여 적군 중에 홀로 포위된채 한시간 가까이 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어 이를 본 장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바로 함대를 이끌고 나가 우수영 앞바다에서 적을 맞았다. 그러나 곧바로 적선 133척에 포위 당하고 말았다. 이순신의 기함은 사력을 다해 분전했지만 부하 장졸들은 어제의 다짐과는 달리 열배나 많은 적세에 기가 질려 슬금 슬금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기함 홀로 적선에 포위 되채 한 시간 가량 고군 분투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운이 다해가자 이순신은 깃발을 들어 부장들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앞으로 나와 전투에 돌입 했고 다른 배들도 처음에는 겁을 먹었었으나 이순신 기함 단독으로도 적군에 포위된채 잘 싸우는 것을 보고는 자신감을 얻어 공격에 가담 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물의 흐름도 조선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적선 31척을 격파하는 기세를 올렸다.

이때 기함에 타고 있던 준사라는 일본 투항병이 비단 옷을 걸친채 바다에 떠 있는 일본군 시체를 가리키며 ‘마다시 마다시’ 외치는 것이었다. 마다시란 일본 해적 출신 수군 대장 구루지마 미치후사의 별명 이다. 이 말을 들은 장군께서는 즉시 시체를 갈고리로 끌어 올리게 한 뒤 뱃전에 올려 놓고 토막을 쳐 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적군의 가를 꺾는 심리전인 것이다. 마다시후사의 형 미치유키도 5년 전 임진왜란 첫째 안골포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에 전사 당했으니 우리 해안을 약



탈 하던 왜구 두목 형제가 나란히 우리의 영웅 이순신에게 인과응보의 처벌을 받은 셈이다. 해전 결과는 일본군이 세끼부네 31척과 승선 인원 다수를 잃고 소독없이 후퇴한 반면 조선 수군은 판옥선 12척을 고스란히 보전 하는 완승을 거두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원균과 이순신의 리더십 유행을 보게된다. 한 사람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부하들을 버리고 치욕스럽게도 육지로 도망치다가 적에게 참살당했고 또 한 사람은 대장을 위험에 빠뜨리며 이탈한 부하들에게 자신의 훈령 ‘필사즉생’을 스스로 실천해 보임으로써 절대 열세를 대승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그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순신 어록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필사즉생은 패전의 공포에서 벗어나 수군 전체의 강인한 정신적 자세를 촉구한 것 이었지만 개전 초기 장졸들 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 자신은 몸소 이를 실천하여 적군 중에 홀로 포위된채 한시간 가까이 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어 이를 본 장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바로 함대를 이끌고 나가 우수영 앞바다에서 적을 맞았다. 그러나 곧바로 적선 133척에 포위 당하고 말았다. 이순신의 기함은 사력을 다해 분전했지만 부하 장졸들은 어제의 다짐과는 달리 열배나 많은 적세에 기가 질려 슬금 슬금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기함 홀로 적선에 포위 되채 한 시간 가량 고군 분투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운이 다해가자 이순신은 깃발을 들어 부장들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앞으로 나와 전투에 돌입 했고 다른 배들도 처음에는 겁을 먹었었으나 이순신 기함 단독으로도 적군에 포위된채 잘 싸우는 것을 보고는 자신감을 얻어 공격에 가담 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물의 흐름도 조선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적선 31척을 격파하는 기세를 올렸다.

이때 기함에 타고 있던 준사라는 일본 투항병이 비단 옷을 걸친채 바다에 떠 있는 일본군 시체를 가리키며 ‘마다시 마다시’ 외치는 것이었다. 마다시란 일본 해적 출신 수군 대장 구루지마 미치후사의 별명 이다. 이 말을 들은 장군께서는 즉시 시체를 갈고리로 끌어 올리게 한 뒤 뱃전에 올려 놓고 토막을 쳐 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적군의 가를 꺾는 심리전인 것이다. 마다시후사의 형 미치유키도 5년 전 임진왜란 첫째 안골포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에 전사 당했으니 우리 해안을 약

이름은 좁은목 지키기 라는 기발한 전술 개념으로 적의 전투력 약 3분의 2를 손도 안 대고 무력화시켜 우리의 10 대 1 병력 열세를 거뜬히 극복하며 위기에서 끝내 나라를 구해 내신 신의 경지에 이른 장군의 전면목을 보여준 사례라 할것이다.



/ 사람, 사람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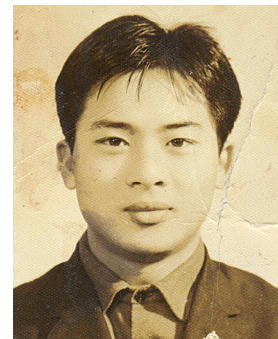
# “평생 국악 한우물... 행복한 인생이죠”

## 김동석 (음대 64/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8월의 어느 날, Buena Park에 위치한 김동석(음대 64·2007년 남가주 총동창회장) 회장님 댁을 찾았다. 정원의 꽃들과 날아 온 새들이 반겨준다. 현관 문을 열자 2층 발코니가 보이는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장고 등 각종 국악기들이, LA 한인들을 위해 국악을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동석 회장의 연륜을 말해 준다.



LA의 코리아퍼레이드에 참석한 젊은 시절의 김동석 전 회장. 그가 창립한 재미국악원은 45년간 올림픽거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음대 1학년 시절의 김동석 전 회장

▼음대연극반 창립공연때 조영남, 문호근 이건용과 함께

- 시간을 내 인터뷰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해 주시겠어요. 전공이 국악이론인데 LA에서 가야금, 장고, 사물노리 등을 지도하시는 걸로 압니다. ▲가야금은 대학 들어 가기 전 국악고등학교에서 전공이었어요. 그 당시 음대 입학생들을 가르쳐 서울음대에 입학시키기도 했지요. 국악이론은 장사훈, 이해구 박사, 작곡은 김달성, 정희갑 씨가 지도교수였어요.



음대 2학년 조영남과 교정에서

음대 재학 시절, 여고 강사활동 계기 교육에 관심

리틀 엔젤스 코리아 지휘자로 백악관 연주 공연

재미국악원 창립 후 45년간 코리아 퍼레이드 참여

88년 한국인 최초 퍼사디나 로즈 퍼레이드도 동참

년 전체 학생이 매주 2시간씩 가야금을 통한 국악교육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 것이 이후 추계예술대학이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니다.

1970년 ROTC 6기로 전역 후 Little Angels of Korea 합창지휘자 겸 음악 반주자로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미국 순회 연주 중 백악관에서 닉슨대통령의 초청으로 East Room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귀국 후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그 것이 선화 예술학교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 미국에 오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971년 6월 UCLA Department of Ethnomusicology Graduate 학생으로 도미하였습니다.

- LA에서의 연주 활동 상황을 들려 주세요.

▲1973년 Los Angeles에서 현지에 있던 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 사양성소) 졸업생 7명이 중심이 되어 재미

국악원을 창립했습니다. 동포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 전통음악을 소개하게 되었지요. 1975년 이후 매년 Wilshire Ebell 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주 최초로 전공자들에 의한 한국전통 음악과 무용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3년 가을, 미주 최초로 “한국의 날 행사”에 현지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농악대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올림픽가에 우리 풍물소리와 함께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어 2018년 Korean Parade까지 45년 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라나는 2세 3세 학생들과 함께 올림픽가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9년 9월 28일 46회 퍼레이드 참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후 현재 까지 인근 도시 축제 마다 풍물팀과 무용팀을 데리고 참석하고 있어요.

- Pasadena Rose parade에 참석하셨지요?

▲1988년 한국인 최초로 꽃차와 농악대를 만들어 참석했고, 88 서울올림픽을 홍보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지도중인 김동석 전 회장



2006년 Schonberg Hall Theater에서 열린 UCLA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 Korean Ethnic Heritage Group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78-1980년 까지 2년간 초대 Director로 년 30만불의 Federal CETA Fund를 받아서 한국전통음악 무용을 전공한 20명의 단원에게 매월 \$850상당의 급여를 지불하여,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으로 미주류사회에 봉사하며 공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기금은 민주당 Carter대통령에 의한 소수민족 우대정책 중 하나였는데 공화당 Regan 대통령이 기금을 중단하여, 단체가 해체되었습니다.

-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을 설립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1978년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을 설립하여 LAUSD ICAP(Inter-Cultural Awareness Program)Performing Tree 등에 Roster Member로 LA. 인근 초, 중, 고교를 방문하며 Korea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1982년 이후에는 LA. Music Center, Orange County Performing Arts Center(현 Segerstrom Center for the Arts), Young Audience in San Diego County 등 Education Department에 정규멤버로 California 전역의 학교 Assembly 수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한 World Music Culture교육을 했습니다.”

- 공연 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까지 대략 5천여회 이상의 학교 공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984년 LA Olympic에 자랑스런 소수민족 예술단체에 선정되어 Japan- American 극장에서 공연하였고, 1984년 Olympic Closing Ceremony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 국악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맡으셨지요?

▲80년대 국악소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Radio Korea 개국 후 18년 동안 Radio Seoul 등에서 “우리가락 좋을시고” “국악의 향기” “우리가락 한마당” 등을 맡았습니다.

- UCLA에서 어떤 강의를 하셨나요?



78년 ‘한국음악무용 예술단’ 설립 본격 한국 알리기  
5천여회 이상 공연... 1984년 올림픽 폐막식도 참여  
UCLA 초빙교수 부임, 가야금·대금·단소 등 가르쳐  
은퇴 후에도 강의 활동... “국악 알리기, 가장 큰 보람”



UCLA 한국음악과 정기공연

▲1997년 UCLA, Department of Ethnomusicology, Music of Korea 초빙교수로 부임, 2004년 Full Time Assistance Professor로 재직하다가 2014년 은퇴하였어요. 과목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해금, 단소, 장고, 북, 사물노리 등입니다.

- LA Fair Fax High School에 국악 프로그램을 만드셨지요?

▲1999년부터 2019년 봄 학기까지 20년 동안 LA Fair Fax High School Korean Drumming Classes를 개설하여 미국 고등학교 최초로 사물노리 학과를 개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밖에 행사가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1997년부터 Korean Music Symposium을 UCLA와 한국 단국대학교 주최로 13년 동안 UCLA Campus, LA 한국문화원, Wilshire Ebell 극장 등에서 학술대회 겸 한국의 인간문화재 초청공연을 가졌습니다.

- 미국에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누가 한국음악을 들려 달라고 하든지, 함께 가야금이나 다른 우리 소리를 연주하자고 할 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우물만 파고 살아온 내 삶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내 것을 좀 더 알릴



1999년 Life 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김 전회장.

줄 아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아마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끊임 없는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도 활동하시지요?

▲2014년 은퇴 후에도 계속하여 Fair Fax High School에서 강의, LA와 Irvine에 사물노리 학과를 개설하여 1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무용 예술단의 학교 Assembly와 국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개인지도하고 있어요.”

- 그외에 세계를 두루 다니시며 여행을 하신지요?

▲틈틈이 시간 나는대로 세상 안 가본 곳을 여행하면서 바람과 구름과 내 피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 소리와 흥을 섞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매우 소중하게 보내고 있지요.

- 문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글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한 우물만 파는 삶은 초기에는 힘들지 몰라도 결국 끝 무렵에는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학천 (치대 70)

/ 세상보기 /

## 햄릿이나, 돈키호테나 아니면...

- 거짓과 위선의 세태에 고함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참 문제네!”를 영역하면 뭐가 될까? 답은 간단하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이다.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이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열한 살짜리 아들 햄넷을 잃은 후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인간의 슬픔을 ‘햄릿’에서 승화시켜 토해낸 절규라 한다.

그리고 햄릿은 다음말로 있다. ‘이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고상한 일인가, 아니면 거센 바다에 맞서서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결국 햄릿은 전자를 택함으로써 사색형 인간의 모델이 되었다. 현대 햄릿이 독백한 후자는 엉뚱하게도 세르반테스가 지

은 낸 돈키호테의 몫이 되어 행동형의 화신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햄릿’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도 비판 받는다. 그에 반해 돈키호테는 무모해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형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햄릿형과 돈키호테형 둘 중 하나이거나 그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유형일 게다. 햄릿같이 선택이나 결정을 못해 우물쭈물 망설이는 ‘굴뚝요족’이든가 지나친 의존중에서 벗어난 ‘키호티즘 족’,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족’ 부류일 거라는 얘기다.

현대 어찌된 일인지 오늘 삶의 현장엔 온통 ‘눈치형’과 ‘묻지마형’만 있다. 정치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소위 지도급이라

는 인사들 두루두루 그렇다. 그 사이에 곱사리 끼어 그 잘난 금권력으로 갑질하는 ‘미개형’ 까지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는 신조는 단 하나, ‘뺏느냐 뺏기느냐, 아님 짓밟느냐 밟히느냐 그것만이 내 알 바로다’이다. 하나같이 거짓과 위선으로 뭉뚱그려진 추태밖에 아는 게 없는 미친한 화상들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겁나서 그랬나? 생전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던 셰익스피어는 오히려 죽으면서 남긴 말이 별로 없다. 단지 ‘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그런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니라’고 했더니...

현대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두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많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생, 파란만장한 절곡의 삶, 죽은 뒤에 더 유명해졌다는 점 등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대가는 공교롭게도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눈감을 때만은 셰익스피어와 달리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묘비명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미친 듯이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노라’고.

이성을 앞세워 잘난 논리로 이해관계를 따지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록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공동의 선을 위해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 아닐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또 다른 무거운 숙제를 내 준 셈이다.

그 뿐 아니다. 작금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비열한 작태들이나 인사들의 치졸하고 유치한 행태를 그리고 금수저들의 저질스런 갑질 행패에 대해 돈키호테는 이렇게 일갈했다. ‘좋은 배경의 미친한 자들보다는 천한 혈통의 나은 사람들이 더 중시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서 기력을 잃게 됩니다. 윤 회장님도 수년 전부터 간질환으로 체중이 줄고, 기력이 떨어져 골프도 치지 못 하시다가, 중국에는 노환으로 천수를 다 하셨습니다. 별 고통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큰 고통은 없으셨다. 그것도 복이고 우리는 지금 호상을 치루고 있습니다.

윤 회장님! 윤 회장님이 계셔서, 유가족은 사랑과 경제적 여유를, 교우와 친지들은 돈독함과 신뢰감을, 저희 후배들은 격려와 편안함을 즐기며, 행복해 했습니다. 여기 남은 유가족, 교인, 친지, 학교 동문, 사회 친구 등 모든 분들은 윤 회장님과의 좋은 인연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다가, 윤 회장님의 뒤를 따라 갈 것입니다.그러니 윤 회장님! 아무 걱정마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평생을 섬기던 기독교의 교리대로 예수님을 만나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윤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창수(약대 64)

지난 일요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친구요, 같은 학교의 동문이며, 교우들이 다니시는 교회의 장로이신 윤정옥 선배님께서, 만 89세를 닮새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대학 동문이신 윤정옥 선배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윤선배님의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아 오늘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가지는 길이 쓸쓸하지 않고, 가쁘하고 따스함을 느끼시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세로 90세까지 사신 것은, 현재의 스탠다드를 봐도 장수하신 것입니다. 이는 윤회장님께서 평소엔 운동을 하시고 충실한 종교생활과 비즈니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신 덕분입니다. 동창회 연말 파티에 따님이신 숙인씨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던, 부녀의 정다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은 슬픔의 시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윤 선배님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후배나 후손의 입장에서 윤 선배님께 한가지 꼭 배워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선배님은 시·공간적으로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에, 미래를 예견하시고 무역업계에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선배님의 구미상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발 맞추어 크게 성장해 갔습니다.



/ 조사 /

## 고 윤정옥 선배님의 명복을 빌며...

공간적으로는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미국에 진출하셔서 거래망을 세계적으로 넓히셨습니다. 컴프레서란 기계와 메탈파우더란 공업용 금속분말을 전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구미상사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국제무역에 대한 예견이 뛰여 낯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2년전에 서울대 뉴욕동창회장직을 맡으신 후 동창회의 기틀을 완전히 잡아 놓으셨습니다. 회장직에서 퇴임하시면서 장례를 내다 보시는 안목을 가지시고, 골든클럽이라는 동창회 산하단체를 창립하시고 초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동문들이 은퇴를 하고 연로해지면 같이 모여서 골프 같은 운동을 함께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으로서, 건강 증진도 되고, 친목으로 애경사를 함께하는 일거양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예견하셨습니다.

## 시애틀 워싱턴주 시니어클럽 SNU포럼

## 김명호씨 흥미진진한 ‘음악여행’ 안내

9월14일 뉴캐슬도서관에서 펼쳐진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 9월 SNU포럼에서 강사인 김명호씨가 큰 박수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시니어클럽 김재훈 회장의 부인인 김씨는 이날 비전공자인데도 전공자에 버금가는 해박한 클래식음악에 대한 지식에 다 세계 유명 뮤지컬을 직접 찾아 다녔던 여행담을 나눠 호평이 쏟아졌다.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김씨가 이날 풀어낸 세계 유명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카라얀·멘덴손·바그너 등의 깊은 사생활이나 일화까지 소개해 쓸쓸한 재미를 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첫번째 강연에서 클래식 음악의 장르와 음악사, 음악사조, 위대한 작곡가 등을 들려준데 이어 시리즈2로 마련된 이날 강연 주제는 ‘세계 유명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로의 여행’이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직접 가본 곳을 중심으로 10곳의 콘서트홀과 10곳의 오페라하우스를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했다.

김씨는 “콘서트홀은 대체로 올림을 통해 부드러운 음을 내기 위해 천장을 더 높게 하고 홀도 크게 짓는데 관객석이 보통 2,000~5,000석에 달한다”며 “시애틀의 베나로야홀도 콘서트홀”이라고 소개했다.



김명호씨가 시니어클럽 '9월 SNU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반면 오페라 하우스는 무대와 관객사이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공간의 피트(Pit)가 있다. 여기에다 성악가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 천장을 낮게 지어 에코를 줄인다. 보통 관객석은 2,000석 정도이다.

콘서트홀의 경우 말발굽 모양의 슈박스(Shoe-box) 형태와 포도원 모양의 빈야드(Vineyard) 타입이 있다. 최근에는 지휘자와 관객과의 거리가 30m 이내로 음향이 좋은 빈야드 타입이 주로 건립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비엔나 필하모니의 연주회장인 오스트리아의 ‘빈 무지크페라’ ▲세계 최초 빈야드타입인 독일의 ‘베를리너 필하모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로얄 콘서트 헤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에 규모와 특징, 건축과정에서의 일화와 사연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했다.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한 신세의 동문(오른쪽)과 신용남 미주동창회장.

/ 동창회 사무실 방문 /

## 공대 67학번 신세의 동문

9월 17일 오후, 동창회 사무실에 반가운 동문이 찾아왔다. 공대 67학번의 신세의 동문이다. 신세의 박사는 모교 공대 화공과를 71년에 졸업하고, 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1980년에 취득한후 Exxon사의 선임연구원으로 3년을 근무하다, 1984부터 2014년까지 중앙대학교 화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은퇴를 했다.



시, 그리고 쉽

## 아주 별난 풀

아해 김태형(의대 57)

옛날, 아주 먼 옛날 제가 태어나던 날  
황제 신농씨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놈이 자라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치유해 주면 좋으련만.....”.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우선 수년간 고행에 들어간 성자 석가모니가 생각나네요.  
매일 저를 가까이하며 극심한 고통을 극복하신 분이니까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 키르케를 기억하시죠?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앞을  
가로막은 요녀잖아요  
술잔에 저를 섞어 감쪽같이 마시게 했죠  
그때부터 저는 나쁘게 쓰여지는 때가 있어서 비난하는  
이들도 생겼어요.

보세요  
젊은이들 저를 보면 떠들 환장하고  
연예인들 저 때문에 감옥 들락거리고  
정치인들 저와의 인연은 애써 감추려하고

하지만 전  
지금도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아픈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고  
항암제로 고생하는 환자들 식욕도 복돋아 줘요.

제 정체가 짐작되나요?  
나이든 분들은 저를 양귀비 같은 속죽이라 비난해요  
젊은이들은 저를 보면 사족을 못 쓰지만요.

제 이름요?  
“카나비스”, 예쁜 이름이죠  
대마초라고도 불러요  
차라리 “지킬과 하이드”라고 부르면 어때요?  
그게 제 취향에 딱 맞기는 해요







서윤석 (의대 62)

/ 추억의 글 (상) /

## 오산 공군 기지에서 만난 젊은이들

<鳥山>

- 신동헌(농대 49년 입학)박사부부 편 -

전쟁은 소강상태로 38선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대통령으로 임명되자마자 당선되어 한국을 다녔다.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소극도 들렸다. UN군이 담당하던 서부 전선에서는 개성이 북쪽으로 들어갔고 동부 전선에서는 국군이 유리하게 북으로 38선을 넘어가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사상자는 속출했다. 철원, 평강, 금화, 소수 철의 삼각지, 배마고지라는 작은 산봉우리를 놓고 삼초화가 된 산을 점령하려고 수백명, 수천명의 인명이 밤낮으로 희생되었다. 판문점에서의 회담에서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되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노획과 공산노획으로 서로 흉기를 찔러죽었다. 이들을 결국은 분리시켰다.

선물을 Lima, Ohio에 가지고 와서 그때를 되새기며 50년 간 간직하고 있었다. 큰축업을 하던 그가 여러 지방으로 나의 권유를인척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필자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꿈틀거리는 용의 조각이 새겨진 푸른 지팡이를 인디아나 한국 전쟁박물관에 기증한다고 했다. 아마도 두 사람 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수용소에서 포로들은 서로 좌우 사상의 이유로 죽이고 싸웠다. 심지어 포로 수용소장. 유엔군 준장을 납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은 3만 5천명의 이들 반공포로들을 밤에 몰래 UN사령부에 알리지도 않고 석방시켰다. 그리고 영국 처칠 수상을 비롯하여 세계 정치가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으로 전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안목에 감탄했고 한국정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휴전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한미 군사동맹을 따냈다. 거제도 인민군 포로중에는 자유를 사랑하는 반공 포로들도 있었지만 적은 수의 친북 포로가 있었다. 중공군 포로들은 따로 수용되었다. 특이했던 것은 모든 여자 포로들은 복에 열성적이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 행동했으며 다 포로 교환시에 북으로 돌아갔다. 한편 북쪽에 잡혔던 UN군 포로중에는 대전 전투에서 잡힌 한 소장도 있었지만 그 숫자가 훨씬 적었다. 제 삼국으로 간 소수의 유엔군 포로들도 있었다.

스트랜저(Stranger) 이병은 오하이오가 고향이었는데 동경에서 주둔하던 부대가 이동하여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와서 일한 거제도에도 있었던 포로를 감시했다. 즉 195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병(MP)으로 복무하던 유엔군 사병이었다. 보급창고 자체실에서 차출되어 일하던 포로인 미스터 정이 하루는 그를 찾아와서 포로교환이 있으면 곧 북쪽으로 가족을 찾아 돌아 간다면 손수 만든 지팡이를 선물했다. 영어를 하던 것으로 봐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당신에게 이 지팡이를 선물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든 것이예요. 나도 당신처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상이 무엇인지.. 나는 가족이 있는 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포로인 저를 친절히 돌봐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말했다.

이 UN병사는 손때가 묻은 정성어린 지팡이



신동현(Paul Shin) 박사 와 부인 허영숙( Mrs. Suzie Shin) 박사

“

당신에게 이 지팡이를 선물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든 것이예요.

나도 당신처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상이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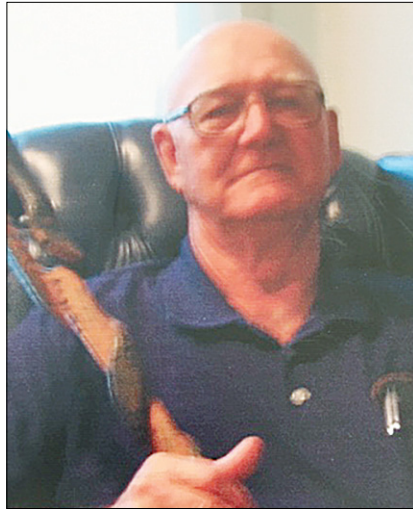
”

포로를 석방했으니 세계의 정치가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이승만 박사는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했음을 다시 말하고 싶다. 아마도 그덕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누가 무려라 해도 더 이상 한반도에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없었고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자유가 있는 통일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긴 체험 전 장이었다. 후세 아이들에게 이 진실을 말하길 있을까?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한편 반공 포로로 석방된 사람들은 사회에

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줄 여유가 아직 없었다. 거리에는 상이군인들이 목발을 짚고 서성거리기도 했다. 고학생이 연필을 팔러 다녔다. 해부학 실험용으로 많은 시신들이 들어왔다. 우리의 의료인들은 그렇게 시신을 내어준 그분들의 영혼에 늘 감사한다.

휴전이 가까워 왔을 때 가장과 같은 허영숙은 황해도에서 자유를 찾아 피난을 나온 가족들을 대구에서 서울로 옮겼다. 자신이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막사 주변에는 유일한 직업으로 미군들을 상대하며 살아야하는 젊은 여자들이 모여



Mr. Stranger 와 공산포로 정씨가 준 지팡이

다. 그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먼 극동(Far East)인 한반도 땅에 와서 3만 6천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총 5만여 명의 유엔군 병사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한국전쟁은 역사상 민간인들의 희생이 가장 컸던 전쟁이었다. 3천만 한반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600만명의 인구가 그 이유는 물론 민간인들이 더 많이 폭격, 질병, 굶주림, 학살(남북 각각 수십만 명의 동족상잔 同族相殘), 실종으로 피해를 입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까지도 부모를 잃고 죽거나 고아가 되었다. 근래에 이 야한 역사를 들추어내는 비양심적인 정치가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모두가 히틀러처럼 잔인한 적화 세계를 꿈꾸던 스탈린의 지휘하에 소련제 200여 대의 탱크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38선 남으로 기습하여 벌어진 전쟁이었다. 나는 내 어린 누으로 피난길에 그때의 참상을 보았다.

오산은 공군기지이다. 그 와중에도 날랜 병사는 물건을 내다 팔면서 돈을 챙기는 병사들도 있었다. 미군부대 물건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도 생겨나고 성병인 임질, 매독에 걸려서 군의관을 찾는 병사들도 있었다. 본국

에서 차별대우를 받던 흑인 병사들이 전투 중에 용감히 싸웠다. 많은 미군들과 한국 여성들이 결혼했다.

14후퇴 시에 영숙은 대구 피난시설에 양주  
동 교수한테 영어를 배웠다. 그 덕택인지 영  
숙은 조금 할 수 있어서 오산 군목 사무실에  
서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리처드슨 대  
령도 원래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군인으로  
오게된 사람이었다. 그는 클라크 대령의 추  
천 때문인지 영숙을 만났다. 이곳에서도 미  
군들과 같이 일요일이면 예배를 보았다. 그  
녀의 회화 능력이 일취월장했다.

리차드슨 목사는 중요한 통역이 필요한 일이면 꼭 영숙을 불렀다. 하루는 영숙이 아침 예배가 끝나고 오후면 텅 비는 등근 군용막사로 만들어진 교회당을 보고 리차드슨 대령에게 제안했다.

"리차드슨 목사님, 이곳을 한인들이 모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매주 일요일 오후 3~4시간만 이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며 물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허양(Suzie),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녀는 오산 기지에서 한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와 시작되고 차츰 휴전이 가까워짐 무렵 하루는 영숙은 열심히 교회일을 하고 있는 한 미군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수송부에서 일하던 키다리 청년은 바로 미스터 신(신동헌)이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다. 서울 양반집에서 자라난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그교성이 뛰어나 호감을 주던 사람이었다.

사변이 날 때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과에 입학하여 아직 미개척지였던 우리나라의 축농사업에 뜻을 두고 공부하던 사람인데 대학 2학년이 시작하고 두 달만에 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키가 6척이 가까운 청년이다. 5척밖에 안 되는 허영숙에 비하면 키다리이다.

어느날 그 청년이 그녀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고갔다.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는 날인데 배스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다. 전형적인 서슬 말싸다. 처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양측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반도 호텔에서 그 날 허양은 청년의 부친을 만났다. 충명하고 바른 사고방식과 투지력을 가진 그녀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늘이 돌보아 만만 사부들이다. 모두들 기뻐했다. 그 다음 양측 부모의 승락 후 그들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판문점에서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고 휴전에 접어들었다. 1953년 7월 2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약하던 휴전 이 된 것이다.

<시계탑(서울의대) 편집장>

www.snuaa.org

# 제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 B E R M U D A C R U I S E —

쪽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6/25/2020 (목)~6.29 (월) - 4박 5일

## / 여행일정 /

|       |                               |                |
|-------|-------------------------------|----------------|
| Day 1 | Thu New York City             | Depart 4:00 PM |
| Day 2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3 | King's Wharf / Arrive 8:00 AM | Depart 4:00 PM |
| Day 4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5 | New York City                 |                |

미주동창회(회장 신응남)는 내년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일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색적인 행사로 4박 5일간의 버뮤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Manhattan Cruise Terminal에서 출항 버뮤다로 향하는 이번 크루즈 여행은 쪽빛 에메랄드 빛의 버뮤다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하고, 미주동문들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문들은 선상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KING'S WHARF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음식 관광, 개인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의 목적은 동문간 협동과 친목을 나누며 단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 동문간 마음을 나누는 큰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가 바랍니다.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하신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 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 여행비용 /

|      |                           |
|------|---------------------------|
| 인사이드 | \$ 9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 오션뷰  | \$1,0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 발코니  | \$1,34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참여 문의: **백옥자 818-395-1967**  
**동창회 718-463-3131**

### ◆ 예약때 필요한 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발급일 만기일(신청서 참조)

### ◆ 크루즈타일 때 필요한 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항공권 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 하시고 취소가 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식 동문이 청중들 앞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동문기업, 미네소타 '태양에너지' 대표기업으로

김권식(공대 61) 회장 'EVS, Inc.' 40주년 행사 성황



EVS, Inc는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하나로 동종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네소타의 renewable energy sector는 작년에 12% 성장했는데, 이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nergy sector이다. EVS는 1 메가와트 부터 500 메가와트 프로젝트까지의 solar site를 설계한다. 10년전부터 김권식 동문은 clean energy가 에너지의 미래라고 믿고서 회사를 clean energy space로 운전해왔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 EVS를 Enviro-science로 재해석하여 홍보하고 있다.

2019년 9월 19일에 미네소타의 Eden Prairie에 위치한 회사에서 500여명의 하객이 참가한 가운데,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김권식 동문은 중대한 발표를 했다. CEO 자리를 10월부터 아들 Andy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EVS가 40주년이 되었는데, 41세의 young guy에게 CEO를 물려주고, 자신은 자주 의자에 앉아 있게 될것 ("would sit on my chair quite a bit")이라고 하

였다. 이 Joke에 청중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Andy Kim이 president로 승진하고 김권식 동문은 chairman으로 승진한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 김권식 동문의 친한 친구인 김영남 교수 (미네소타대학교 음대, Violin; chair of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Minnesota)와 Ariana Kim (코넬대학교 음대, Violin; co-chair of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Minnesota)이 string quartet을 이끌고 축하공연을 하였다. EVS 40주년 행사를 위해 신용남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은 축하의 화분을 보내왔다.

군 복무 후 미네소타로 유학,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대표는 EVS라는 태양광 회사를 인수, 미국 내 업계 'Top 5'로 끌어올렸다. 또 '미네소타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미네소타 올해의 경영인 상'을 수상하는 등 70대 중반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기업 활동을 이끌고 있다.

EVS와 김권식 동문에 대한 스토리는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7호 (2019년 1월호)에 실려 있다. EVS의 Dennis Kim (President)과 Andy Kim (Vice President)이 인터뷰한 video는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Q2E\_JEjz\_4&feature=share)에서 볼 수 있다.

### / 행사 화보 /



행사에 참석한 하객들.



아리아나 김과 김영남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김권식 동문(오른쪽)과 아들.



디너를 즐기고 있는 하객들.



# 동창회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 snuaa.org —

서울대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서  
회비납부 및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http://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

Option 1. 온라인 납부 (동창회비)



- 위의 "Donate" 버튼을 누르면 결제 웹사이트 (PayPal)로 이동합니다.
- 결제 웹사이트에서 \$75, \$150, \$200 버튼 또는 원하는 후원금 액수를 입력합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하려면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눌러주세요.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사진 위)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

United States

Card number

Expires Security code

First name Last name

Billing address

Street address

Apt., Ste., Bldg. (optional)

City

State ZIP code

Contact information

Mobile Phone number

Email

☐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

[View PayPal policies and your payment method rights.](#)

**Donate Now**

Cancel and retur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4. You've donated \$ US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We'll send you back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in a few seconds.

5. 감사합니다!

후원금 후원하신 금액입니다.

###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수표의 수취인 (payable to)은 SNUAA-USA입니다.
-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mailto: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이창길(자연 85) 사무총장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     |             |     |             |       |                   |       |               |              |             |     |
|-----------------|-----|-------------|-----|-------------|-------|-------------------|-------|---------------|--------------|-------------|-----|
| <b>전회장단 이월금</b> |     |             |     |             |       |                   |       |               |              |             |     |
| (6/23)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업소록 광고비</b>  |     | <b>장학금</b>  |     |             |       |                   |       |               |              |             |     |
| 강호석 (상대 81 )    | 240 | 이용락 (공대 48) | 500 | 서울 총동창회     | 3,000 | 조달훈 (사대 66)       | 500   | <b>로키마운틴스</b> | <b>워싱턴 주</b> |             |     |
| 백승원 (의대 73)     | 240 | 오인환 (문리 63) | 200 | 뉴욕지역 동창회    | 2,000 | 조상근 (법대 69)       | 1,000 | .....         | 이원섭 (농대 77)  | 100         |     |
| 신동국 (수의 76)     | 240 | 임필순 (의대 54) | 100 | 뉴욕지역 골든클럽   | 1,000 | 최경석 (사대 80)       | 650   | <b>루이지애나</b>  | <b>조지아</b>   |             |     |
| 이경림 (상대 64)     | 240 | 이원섭 (농대 77) | 100 | 이만택 (미주재단)  | 4,500 | 최수용 (상대 55)       | 500   | .....         | .....        |             |     |
| 이준영 (치대 74)     | 240 | 황현상 (의대 55) | 100 | 강에드 (사대 60) | 500   | 최철용 (농대 57)       | 500   | <b>미네소타</b>   | <b>필라델피아</b> |             |     |
| 이종모 (간호 69)     | 240 | 문성인 (공대 88) | 100 | 곽선섭 (공대 61) | 300   | 최한용 (농대 58)       | 1,000 | 남세현 (공대 67)   | 2,000        | 이만택 (의대 52) | 200 |
| 정재훈 (공대 64)     | 240 | 이규만 (문리 51) | 25  | 권문웅 (미대 61) | 200   | 최형무 (법대 69)       | 200   | <b>북텍사스</b>   |              | 전무식 (수의 61) | 200 |
| 김원철 (농대 70)     | 240 |             |     | 김광호 (문리 62) | 1,000 | 추재욱 (의대 57)       | 1,000 | .....         |              | 정태광 (공대 74) | 100 |
| 엄동해 (농대 74)     | 240 |             |     | 김승호 (공대 72) | 2,000 | 한경수 (문리 57)       | 300   | <b>샌디에고</b>   |              | 조정현 (수의 58) | 200 |
|                 |     |             |     | 김종율 (사대 53) | 300   | 한귀희 (미대 68)       | 1,400 | .....         |              | <b>플로리다</b> |     |
|                 |     |             |     | 김해암 (의대 52) | 1,000 | 한영수 (의대 61)       | 200   | <b>시카고</b>    |              | 김종권 (의대 63) | 200 |
|                 |     |             |     | 노명호 (공대 61) | 1,000 | 홍중만 (공대 64)       | 300   | 강영국 (수의 67)   | 200          | 임필순 (의대 54) | 100 |
|                 |     |             |     | 노용면 (의대 48) | 100   | 홍지복 (간호 70)       | 500   | 김연화 (음대 68)   | 200          | <b>커네티컷</b> |     |
|                 |     |             |     | 민준기 (공대 59) | 300   | DOUBLE TREE (최유희) | 500   | 김정화 (음대 56)   | 25           | 김기훈 (상대 52) | 200 |
|                 |     |             |     | 박영철 (농대 64) | 2,000 |                   |       | 이성길 (의대 71)   | 200          | <b>하트랜드</b> |     |
|                 |     |             |     | 정선주 (간호 68) |       |                   |       | .....         |              | <b>휴스턴</b>  |     |
|                 |     |             |     | 박윤수 (문리 48) | 1,200 |                   |       | <b>오레곤</b>    |              | 진기주 (상대 60) | 500 |
|                 |     |             |     | 박중수 (수의 58) | 1,000 |                   |       | 김상순 (상대 67)   | 200          |             |     |
|                 |     |             |     | 박희병 (치대 63) | 200   |                   |       | .....         |              |             |     |
|                 |     |             |     | 백승원 (의대 73) | 1,500 |                   |       | <b>오하이오</b>   |              |             |     |
|                 |     |             |     | 석창호 (의대 66) | 400   |                   |       | .....         |              |             |     |
|                 |     |             |     | 선종철 (의대 57) | 200   |                   |       | <b>워싱턴 DC</b> |              |             |     |
|                 |     |             |     | 성기호 (사대 57) | 200   |                   |       | 권철수 (의대 70)   | 200          |             |     |
|                 |     |             |     | 손재욱 (가정 77) | 500   |                   |       | 서윤석 (의대 62)   | 200          |             |     |
|                 |     |             |     | 송웅길 (대원 69) | 500   |                   |       |               |              |             |     |
|                 |     |             |     | 송학린 (법대 59) | 650   |                   |       |               |              |             |     |
|                 |     |             |     | 신웅남 (농대 70) | 2,000 |                   |       |               |              |             |     |
|                 |     |             |     | 연봉원 (문리 61) | 300   |                   |       |               |              |             |     |
|                 |     |             |     | 윤상래 (수의 62) | 1,000 |                   |       |               |              |             |     |
|                 |     |             |     | 윤은상 (상대 66) | 80    |                   |       |               |              |             |     |
|                 |     |             |     | 이병준 (상대 55) | 1,000 |                   |       |               |              |             |     |
|                 |     |             |     | 이상무 (의대 62) | 100   |                   |       |               |              |             |     |
|                 |     |             |     | 이수호 (보건 69) | 200   |                   |       |               |              |             |     |
|                 |     |             |     | 이용락 (공대 48) | 650   |                   |       |               |              |             |     |
|                 |     |             |     | 이준행 (공대 48) | 1,000 |                   |       |               |              |             |     |
|                 |     |             |     | 이종무 (의대 69) | 500   |                   |       |               |              |             |     |
|                 |     |             |     | 조남천 (사대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 제15대 미주동창회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      |             |                                        |          |
|---------------------------------------------------------------------------------------------------------------------------------------------------------------------------------------------------------------------------------------------------------------------|---------------------------|------|-------------|----------------------------------------|----------|
|                                                                                                                                                                                                                                                                     | 지역                        | 이름   | 전화          | Email                                  | 회계연도     |
| 역대회장                                                                                                                                                                                                                                                                | 남가주<br>S.CA/NV            | 회장   | 한귀희 (미대 68) | 805-300-7977 khahn@4apec.com           | Feb-Jan  |
|                                                                                                                                                                                                                                                                     |                           | 차기회장 | 민일기 (약대 69) |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          |
|                                                                                                                                                                                                                                                                     | 북가주<br>SAN FRANCISCO      | 회장   | 곽준경 (법대 75) | 650-656-7683 joon.kwag@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br>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br>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br>명예회장: 윤상래 (수)                                                                                                                           | 뉴욕<br>NY/NJ               | 회장   | 조상근 (법대 69) | 201-913-0565 amcoinc@msn.com           | July-Jun |
|                                                                                                                                                                                                                                                                     | 뉴잉글랜드<br>MA/RI/NH/ME/VT   | 회장   | 이강원 (공대 66) |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 Jul-Jun  |
|                                                                                                                                                                                                                                                                     |                           | 차기회장 | 김정선 (문리 66) | 617-780-7205 jkim@systemic.com         |          |
|                                                                                                                                                                                                                                                                     | 북텍사스<br>LA/DALLAS         | 회장   | 강성호 (수의 81) | 214-215-4447 oah9999@yahoo.com         | Jan-Dec  |
|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br>고문: 박중수 (수), 주종광 (약)                                                                                                                                                                                                                            | 텍사마운틴스<br>MT/CO/WY/NM     | 회장   | 최용문 (공대 77) |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 미네소타<br>MINNESOTA         | 회장   | 송세진 (치대 78) |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자기회장: 노명호 (공)<br>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br>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br>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 샌디에고<br>SAN DIEGO         | 회장   | 신욱인 (농대 87) |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 Nov-Oct  |
|                                                                                                                                                                                                                                                                     |                           | 차기회장 |             |                                        |          |
|                                                                                                                                                                                                                                                                     | 시카고<br>IL/IN/WI/MI        | 회장   | 김병윤 (문리 65) |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장윤일 (공대 60) | 630-305-8792 ychang@anl.gov            |          |
| 집행부                                                                                                                                                                                                                                                                 | 애리조나<br>ARIZONA           | 회장   | 오윤환 (공대 56) | 520-271-2601 youn.oh@gmail.com         |          |
|                                                                                                                                                                                                                                                                     |                           | 차기회장 |             |                                        |          |
|                                                                                                                                                                                                                                                                     | 앨라스카<br>ALASKA            | 회장   | 윤재중 (농대 55) |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          |
|                                                                                                                                                                                                                                                                     |                           |      |             |                                        |          |
|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br>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br>재무 국장: 한경진 (음)<br>IT 국장: 이창길 (자연)<br>업무 국장: 연영재 (공)<br>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br>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br>문화 국장: 홍선례 (음)<br>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 오레곤<br>OR/ID              | 회장   | 전병택 (상대 65) | bryanchon@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 오하이오<br>OHIO              | 회장   | 이성우 (상대 72) |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          |
|                                                                                                                                                                                                                                                                     |                           | 차기회장 |             |                                        |          |
|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br>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br>편집장: 박정원<br>편집 위원: 한경수 (문), 주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br>최한용 (농),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br>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이창길 (자), 문현호 (음)<br>한경진 (음)<br>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 워싱턴 DC<br>DC/MD/VA/WV     | 회장   | 정평희 (공대 71) |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 Jul-Jun  |
|                                                                                                                                                                                                                                                                     |                           | 차기회장 | 박상근 (법대 75) |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          |
|                                                                                                                                                                                                                                                                     | 워싱턴 주<br>WASHINGTON       | 회장   | 류성렬 (공대 72) | 425-786-4766 sungyl04@comcast.net      | Jan-Dec  |
|                                                                                                                                                                                                                                                                     |                           | 총무   | 임현민 (공대 84) |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          |
|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br>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br>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br>유재봉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br>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br>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 유타<br>UTAH                | 회장   | 김한섭 (공대 93) |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 조지아<br>GA/AL/MS           | 회장   | 주지영 (문리 66) |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공영식 (사대 79) |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          |
|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br>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br>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 중부텍사스<br>MID-TEXAS        | 회장   |             |                                        |          |
|                                                                                                                                                                                                                                                                     |                           |      |             |                                        |          |
|                                                                                                                                                                                                                                                                     | 필라델피아<br>PA/DE/S.NJ       | 회장   | 조정현 (수의 58) | 856-685-9762 jcac4610@gmail.com        | Jul-Jun  |
|                                                                                                                                                                                                                                                                     |                           | 차기회장 |             |                                        |          |
|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br>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br>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br>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 플로리다<br>FLORIDA           | 회장   | 정치영 (법대 76) | 305-665-1961 cychyung@gmail.com        | Jan-Dec  |
|                                                                                                                                                                                                                                                                     |                           | 차기회장 |             |                                        |          |
|                                                                                                                                                                                                                                                                     | 캐롤라이나<br>SC/NC/KY         | 회장   | 지원식 (공대 85) | 919-913-5570 wschee@gmail.com          |          |
|                                                                                                                                                                                                                                                                     |                           | 차기회장 |             |                                        |          |
|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br>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br>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 커네티컷<br>CT                | 회장   | 유시영 (문리 68) | 203-305-3910 t60syu@gmail.com          |          |
|                                                                                                                                                                                                                                                                     |                           | 차기회장 |             |                                        |          |
|                                                                                                                                                                                                                                                                     | 테네시<br>TENNESSEE          | 회장   | 김상호 (공대 86) | 856-386-1094 kimsh@ornl.gov            | Jan-Dec  |
|                                                                                                                                                                                                                                                                     |                           | 부회장  |             |                                        |          |
|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br>위원: 각 지부 회장                                                                                                                                                                                                                                 | 하와이<br>HAWAII             | 회장   | 성낙길 (문리 77) | 808-956-2611 nsung@hawaii.edu          | Jul-Jun  |
|                                                                                                                                                                                                                                                                     |                           | 총무   | 전수진 (식공 89) | 808-956-8283 soojin@hawaii.edu         |          |
|                                                                                                                                                                                                                                                                     | 하틀랜드<br>IA/MO/KS/NE/AR/OK | 회장   | 이치현 (약대 77) | 913-814-9452 leech@umkc.edu            | Sep-Aug  |
|                                                                                                                                                                                                                                                                     |                           |      |             |                                        |          |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br>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br>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 휴스턴<br>HOUSTON            | 회장   | 구자동 (상대 70) |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 Jan-Dec  |
|                                                                                                                                                                                                                                                                     |                           | 부회장  |             |                                        |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권오을 (상대 56) | y.kwon@griffith.edu.au                 | Jan-Dec  |
|                                                                                                                                                                                                                                                                     |                           | 부회장  |             |                                        |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종기 (공대 70) | 403-617-7585 movics@shaw.ca            | Mar-Feb  |
|                                                                                                                                                                                                                                                                     |                           | 부회장  |             |                                        |          |

-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한남체인과 함께하면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또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위해 새해에도 한남체인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 한남체인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표: 하기환(공대 66)



###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